朝鮮日報
夕刊 三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難産의後繼内閣 今明中大命降下?
時局收拾次人選에大奔忙
爲先内大臣을決定

【東京電話同盟】内大臣의 後任及後繼内閣의 首班者銓考에 關한 中央政界의 動向은 二日 西園寺公과 牧野伯의 上東과함께 드듸여 具體的인 眞摯味를 띄게되엇다 卽西公은 上東後 卽時 參内하야 時局收拾에 關하야 優渥한 御下問을 拜하고 御前을 退下後 一木樞相、湯淺宮相과 重要協議를 遂하고 다시 牧野伯도 參内하야 天機奉伺後 이또한 一木樞相、湯淺宮相과 協議하고 宮中을 退下하엿다 그런데 西園寺公은 그後도 宮中에서 各方面의 情報를 聽取하고 愼重히 熟考하는 同時에 三日도 繼續하야 朝來 宮中에서 重臣과 陸海軍側의 意見開陳을 求하고 잇다 그러나 西公으로서는 如斯한 非常時이므로 可及的 速히 後繼内閣의 首班을 決定하야 人心의 安定을 期하고 십다는 意向을 가지고 잇는모양으로 可及的速히 各方面의 情報를 聽取하야 그意를 決하야 삼가 御下問에 奉答할것으로 보이므로 그時期는 意外로 빨라 一兩日中에는 어떠케 豫測이 서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後繼内閣首班決定의 前提라고 보이는 内大臣後任은 三日中에 決定發表될것으로 觀測되다 그리고 後繼内閣首班에 關해서는 今後의 時局의 動向을 現狀打破에 두느냐 或은 漸進的改革에 두느냐에 依하야 그人選도 相違할터인데 지금으로는 平沼樞府副議長、近衛貴族院議長、河合樞府顧問官、宇垣朝鮮總督等이 有力候補로 列擧되고잇다

現狀打破? 漸進改革?

【東京電話電通】時局收拾에 關하야 西園寺公은 다시 三日 重臣及陸軍側首腦部의 意向을 聽取하야 愼重한 態度로서 御下問에 奉答하기로 되엇는데 後繼内閣首班決定은 時局今後의 動向에 가장重要한 關聯을 가지고 特히 今回의 事件이 皇軍中에서 叛徒를낸 大不祥事件이것만큼 이에關한 軍首腦部의 責任이 重大함을 痛感하고 今後의 軍規肅正、統制强化에 全力을 擧하는 同時에 次期政權에 關해서도 참으로 力備手腕잇는 人物을 待望하고잇는데 現下의 複雜多岐한 情勢下에서 西園寺公은 後繼内閣首班의 銓衡에 關하야 愼重又愼重을 期할터로 그人選은 未曾有의 困難에 逢着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西公으로서는 爲先 三日中에 内大臣의 後任을 奏薦할 意向인데 그候補者로는 樞密顧問官陸軍大將河合操、同海軍大將有馬良橘及淸浦奎吾伯의 三氏가 最有力하고 一方 後繼内閣의 首班者는 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樞密院副議長平沼騏一郎男의 兩者中에 決定될것으로 보인다 如何튼 大命降下는 이一兩日中에 잇슬것으로 보인다

具體的銓衡着手 宇垣說이新擡頭

【東京電話電通】後繼内閣首班에 누구를 奏請할것인가에 關하야 西園寺公도 現在의 時局收拾의 重大性에 鑑하야 極히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二日은 天機奉伺後 宮内省에 退下하야 專혀 宮中關係의 重臣의 意向을 徵하엿는데 三日午後는 淸浦伯若槻男等 重臣을 爲始하야 岡田首相、川島陸相、後藤内相等을 招致하고 各各忌憚업는 意見을 求하야 드듸어具體的 銓衡에 着手할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有力한 候補者로는 平沼樞府副議長、河合樞府顧問官、近衛貴族院議長等이 例擧되어、多少、人物難에 陷한 感을 뭇하고잇다 그런데 마침 西園寺公의入東과 함께有力方面에 새로 宇垣朝鮮總督說이 擡頭하야 依然 衡動을異하고잇는데 何人이 首班이 되더라도 後繼内閣은 人材本位의 强力内閣이라야할것은 各方面의 一致된要望이라 西園寺公으로서도 此際에 國内政勢뿐아니라 對外關係에도 深甚한 注意를하야 國内的으로는 實際로 一步進한 政治를行할수잇는 實行力을 가지는同時에 부질업시 矯激한 印象을 與하는 如한 人物은 難克服의 秋임에 鑑하야 國民의 信望을 集中할수업다는 見解에서 實力잇는 人物을 首班에 奏請할意向이라고 보이어 宇垣說의 擡頭는 注目을 集中하고잇다

海相後任은 末次、永野兩大將有力

【東京電話同盟】後任海軍大臣의 人選은 時節이時節이라 가장注目되고 잇는데 目下의情勢로는 大角海相이 留任치안흘것은 決定的이오 따라서 그後任으로는 有力히 傳하고 잇는것은 軍事參議官 末次信正大將、同永野修身大將인데 後繼内閣首班이 平沼樞府副議長에 落着될 境遇에는 末次大將의 出馬는 確定的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外에 橫須賀鎭守府司令官 米内光政中將說도 잇스나 前兩大將에 比較하면 實現性은 極히 稀薄한모양이다

現狀維持排擊코 革新政權을要求
資本主義機構根幹에斧鉞을加하라
社會大衆黨서聲明

【東京電話電通】社會大衆黨은 二日午後 麻生書記長談의 形式으로 左와 聲明을 發하엿다

一、過般의 總選擧에서 我黨이 躍進的勝利를 博한 所以는 國民大衆에 内在한 澎湃한 國家革新의 機運에 依한것이라고 밋는다 偶然히 今回의 事件이 잇서 더욱 使命의 重大함을 痛感한다

二、今回의 事件勃發에 對해서는 그原因의 遠且深함을 느끼고 嚴密한 批判을 抑制하는者어니와 적어도 五·一五事件以來 齋藤、岡田兩内閣이 一時의 糊塗를 꾀하고 革新의 熱望을 閑却해온것에 큰 原因이 잇다고 밋는다

三、國家革新의 樞軸은 資本主義機構의 根幹에 斧鉞을 加하야 國内改革의 斷行、昭和維新의 遂行에 依하야 政治의 腐敗、軍部、旣成政黨과 結한 一部特權階級의 合作인 現狀維持的 擧國政權을 排하고 國民大衆을 基底로한 革新的政權의 樹立을 要求한다

四、我黨은 세번如斯한不祥事의 勃發을 업게하기爲하야 國民과함께 今回의 事件의 貴重한國家的犧牲을 살피어 更始一新을 爲하야 邁進할것을盟誓하는者이다

革新的政府는 出現不能?
◇近衛公의談話

【東京電話電通】貴族院議長近衛文麿公은 二日午後九時半 永田町自邸에서 時局問題에 關하야 如左한 談話를하엿다

後繼内閣이 어떠케되겟느냐하는 問題에關해서는 勿論 何人이라할지도 大命降下에압서 私議할性質의것이 아니나 今回事件의 一部의 叛亂將校들이 생각한것가튼 非常한 革新的인 政府가 되리라고는 到底히 생각되지안는다 後繼内閣의 首班者의 銓衡은 어느때나 마찬가지 順序를 밟버 内閣이 成立되리라고 나는본다 勿論 時局의 現狀으로보더라도 軍部의 希望이 多分히 參酌될것은 當然할것이다

樞府本會議

【東京電話同盟】樞密院에서는 四日午前十時부터 宮中東溜間에서 本會議를 開하고 一木平沼正副議長以下 各顧問官、岡田首相以下 各大臣關係官도 出席하야 二日審査委員會에서 可決된 上奏案件을 決定하기로되엇다

新陸相就任後 廣範圍異動斷行?

【東京電話同盟】二日發令을보게될 豫定이던 陸軍定期異動은 現内閣의 總辭職、渡邊大將의急逝로 陸相敎育總監其他、首腦部에도 多數의 異動이必要하게되어 今回의 異動에는 相當한變動이 잇게되어 또한그때문에 目下關係當局에서研究中인데 新陸相의 就任을기다려 陸軍首腦部重要人事는 廣範圍의 異動이잇스리라고觀測되다

陸軍大臣에는 小磯中將이有力

【東京電話同盟】今回의 不祥事件에 陸軍이 關係한것만큼 後任陸相에 어떤人物이 推擧될는지 注目되는바이다 그러나 後任陸相은 後繼内閣首班者如何로 銓衡을 보게될터로 軍事參議官은 陸軍의 長老로 今回의不祥事件에 重大한 責任을 痛感하고잇는關係上 後任陸相은 中將級으로부터 銓衡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다 또 事件의 性質上 部内幹部의 立場에잇는 人物中에서 求하거는 困難하야 參謀次長 杉山元中將說도 잇섯스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同中將의 起用은 至難하다고 보이기때문에 此際에는 從來의 諸般關係를 一切拋擲하고 이難局을 打開할수잇는 가장 有力한 人材를 推擧할것이라고 第四師團長 建川美次、朝鮮軍司令官小磯國昭、臺灣軍司令官柳川平助、三中將中에서 推擧될것으로 보인다

佛中航空連絡 廣東政府서中斷

【廣東二日發同盟】上海하노이를 連結하는 中國航空公司의 佛中航空連絡第三號機 福建號는 二十七日 上海發當地에 飛來하야 二十八日早朝 하노이로 出發할 豫定이던바 廣東當局은 突然飛行停止를 命하엿기때문에 同機는 積載한郵便物을 廣東郵局에 付托하고 乘客三名과함께 一日上海에 歸還하엿다 右는廣東政府가 再三에亘하야 廣東하노이線은 西南航空公司에서 就航하고싶다는希望을 述하엿스나 中央은이것을 물리치고中國航空公司에 委托하엿기때문에 이가튼 行動에나선것이다

日本對蘇方針 急轉回는업다
蘇聯側의東京事件批判에 關東軍서態度表明

【新京二日發電通】今回의 東京事件을 契機로 日本의 對蘇政策이 積極的으로 急轉回할것이라는 觀測을내려 蘇聯政府는 相當한 恐慌을 招來하야 軍備充實에 狂奔하고 特히 滿蘇國境方面에 增兵中이라는 確報가傳하고잇는데 右에 對하야 關東軍當局은 一日非正式으로 如左히 態度를 明瞭히 하엿다 卽 日本의 對蘇方針은 滿洲帝國의 發展過程을 基礎로하고 日滿兩國生存權의 確保를 大眼目으로하는 東洋平和의 大精神에 立脚하는것으로서 關東軍은 日滿兩國共同防衛의 重任을 帶하고 滿洲國의 國防産業의 動力을 把握하는 以上 假令 日本國内에 如何한 變動이 잇더라도 그方針에 微動도 잇슬것이아니오 따라서 日本 對蘇根本方針에 急轉回를 招來하는것과 如한일은 絶對로업다 끗까지 協調한 旣定方針貫徹에 邁進할것뿐이다

新協定交涉 獨政府受諾

【倫敦二日發同盟】獨逸大使館參事官 비스마르크伯은 二月二十九日 英國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고 新海軍協定締結交涉에 應諾한다는 旨를 回答하엿다 비스마르크 參事官의 回答要旨는 如左하다

一、獨逸政府는 倫敦海軍會議에서 成立된 協定을 基礎로 하야 英國政府間에 交涉을 遂하야 新海軍協定을 締結함을 不惜한다

一、但 蘇聯海軍復興의 現狀에 鑑하야 英國政府에서는 新協定과 同僚의 協定을 蘇聯政府間에 締結함을 要望함

以上의 提言에 接하야 英國政府는 近近蘇聯政府에 對하야 海軍新協定締結을 提言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다

淸浦伯今日午後歸東

【熱海電話同盟】熱海의 別邸에서 靜養中이던 淸浦奎吾伯은 宮中에서 重臣會議가 開催된다고 傳하고 時局이 重大한이때라 歸東하야 自邸에 잇고저 三日午後 熱海發 上東할 模樣이다

滿洲國領內 蘇聯鐵道二線 實力撤收를決意
兩國間讓渡交涉의不如意로 今後推移가極注目

【新京三日發電通】滿蘇兩國은昨年六月以來 兩國鐵道會議開催의 前提인 滿洲國内 蘇聯鐵道 卽東은 滿蘇國境으로부터 綏芬河에 至하는 烏蘇鐵道、西는 滿蘇國境으로부터 滿洲里에 至하는 자바이칼鐵道의 條約에 基하야 讓渡交涉을 거듭하고잇는데 蘇聯一流의 에누리와 不誠意로 交涉은 全혀 暗礁에부듸처 滿洲國側은 不得已 行政處分의 非常手段에 訴하야 兩線의 實力撤收를 決意하게되엇다 國際交通上의 兩線의 重大性에 鑑하야 今後의 推移는 極히 重大視되다

에軍完全潰滅 結局伊軍에屈伏?
再戰捷을파元帥報告

【羅馬二日發同盟】東阿遠征軍總司令파도리오元帥는 엔델타地區의 第二次戰捷을 一日公報로써 如左히 報告하엿다

二月二十七日로써 開始된 엔델타地區第二次戰鬪에 에리트리아部隊는 北方으로부터 同時에 第三軍은 南方으로부터 同時에 進擊을 開始하야 激戰數日後 決定的勝利를 거두엇다 라스·갓사將軍과 라스·세윰將軍麾下의 에디오피아軍은 伊太利第三軍의 側面으로부터 外루終路方面에서 猛烈한 反擊을 試하엿스나 에디오피아軍은 到處에서 大損害를 蒙하야 馬匹軍需品과 輜重을 喪失한 에디오피아軍各部隊는 모다 兵器를 放棄하고 遁走하엿스며 敗殘兵은 追擊하는 數百臺의 伊太利空軍機에 爆擊되엇다 伊太利軍의 損害는 輕微하다 但的確한 損害는 判明되는대로 速報할터이다 에디오피아軍은 라스·뎃사軍及라스·물게타將軍의 敗戰에 繼續하야 今回의完全한 壞滅로에디오피아軍은 지금 伊太利軍의 軍門에 屈服할바가업는狀態가 되엇다

對伊石油禁輸案 結局流産?

【주네브二日發電通】二日午後의 制裁委員會開會를 압두고 이-든英外相、플랑당佛外相、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의 三氏는 二日午前十一時 會合하야 對伊制裁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右會談後 이-든外相은 制裁十八人委員會議長바스콘셀로스氏와 會見하고 바스콘셀로스氏는 다시 플랑당外相과 따로 會見을 遂하엿다 目下의 情勢로는 對伊制裁의 最後的手段인 對伊石油禁輸案은 結局 決定되지안코 流産에 終할것이아닌가 觀測되다

伊太利政府 新協定不參加決意

【倫敦二日發同盟】佛國代表首席콤방大使는 二日午後 伊太利代表그란디大使를 訪問하고 新海軍協定案에 關하야 參加를 要請하엿다 콤방大使는 伊太利政府가 政治上理由로 新協定參加를 拒否하는事情을 諒解하다는 旨를 述하고 短期技術的으로 新協定支持를 表明하야 政治的異議를 將來에 延期하는것이 어떠냐고 參加勸說을 試하엿다 但 伊太利政府의 決意는 자못 구지新協定에 參加할 意思는全然업다

共産軍進出로 山西省一部에戒嚴令

【北平三日發同盟】毛澤東、劉志丹麾下의 共産軍은 陝西로부터 山西에 들어와 省西部中陽縣에서 山西軍二個營(二大隊)을 擊滅하고 中陽縣에 쏘베트政府를 樹立하엿다 傳한다 中陽縣敗戰으로 旅長은 罷免되엇다고하는데 省城太原城内에는 非公式戒嚴令이 宣布되고 人心은 極度로 動搖되고잇다고 傳한다

舊東北軍山西進出

【北平三日發同盟】于學忠氏와王以哲氏麾下의 舊東北軍은 赤軍의 山西入의 뒤를바더 드듸어 黃河를 橫斷하야 山西 西部에 들어갓다 後續部隊도 繼續山西에 進軍中이라고한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三日午前十時四十五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爲先 今回의 東京事件에 關하야 宇垣總督으로부터 過日來의 帝都騷擾事件은 相當히 各地에 異常한 衝激을 與하엿스나 朝鮮内는 極히 平穩하얏든것은 平素에 民衆의 覺悟가 効果를 낸것이라고생각한다 今後如斯한 事件이 起할일은 絶對로 업다고 생각되나 如斯한 事態가 生한 境遇에 今回에 어든 所重한 經驗으로써 難局을 突破하도록 充分한 用意를 하기바란다 라고 注意하고 다음 今井田政務總監이 今回事件의 眞相은 不明이나 如斯한 事態가 發生한것은 原因이 잇스리라고생각되니 結局 社會의 各種事態에서 改善이 必要한 事實이 存在하는것은 否定키難한바라고 생각한다 故로 如斯한 空氣가 잇는것을 充分考慮하고 檢討를 加하야 善處할 必要가 잇다 多幸히 朝鮮에서는 何等影響이 업는것은 農村振興과 如한 말하자면 國民的大運動이 잇고 이大運動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組織이 存在하엿기때문에 如斯한 事件이 勃發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微動도 아니할줄안다 따라서 더욱 如斯한 運動은 擴大强化하야 今後의 非常時局에 善處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되다 라고 各各 注意와 今後의 用意를 述하고 吉田鐵道局長이 三月一日부터 南朝鮮鐵道를引繼하고 職員三百名을 全部引繼한것 財務局長代理西崎理財課長으로부터 今回事件으로 金融方面에 關해서도 念慮햇스나 銀行當局의 善處로 極히 平靜히 지낫다 라고 報告하고 井上遞信局長이 簡易保險關係法規의 日本内地와 朝鮮統一이 五月一日부터 實施되므로 從來의 不便이 一掃되게되엇다 또 昨二日부터 海上安全週間이 開始되엇다는 旨 報告하고 池田警務局長이 所管事務에 關하야 報告한後 同十一時二十五分散會하엿다

三國協定締結코 英、獨、蘇와도個別的으로交涉
五個條約完立에努力

【倫敦二日發同盟】海軍縮少會議는 開會以來 거의 三個月을 經하야 드듸어 最後段階에 들어가 日伊兩國代表의 脫退로 겨우 英米佛三國政府間에 新協定을 締結할 段階가 되엇는데 英米佛三國代表間에는 依然 主力艦의 艦齡期間에 關하야 意見相違가잇서서 米國代表스탠드레는 昨日午前 最後的折衝을 遂할 模樣인데 結局 어떠한 妥協點에 到達할것으로 보인다 一方 英國政府는 獨蘇兩國政府間 建艦通報案과 實的制限을 基礎로한 新協定을 個別的으로 締結하야 政治的障礙를 巧妙히 回避하면서 實的으로 海軍力制限의 目的은 達成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다 따라서 倫敦海軍會議의 結果로는

一、英米佛三國政府間의 新協定
一、英獨兩國政府間의 新協定
一、英蘇兩國政府間의 新協定

이 各各 成立될터인데 英國政府로서는 將來 此等三個의 協定을 一括한 五國條約을 形成하야 一九三六年十二月末 華府條約의 滿期失效에 압서 關係五個國이 日伊兩國政府에 參加를 要請할 方針이라고한다

滿洲國 武裝團體를統制

【新京二日發同盟】滿洲國에서 建國以來 治安維持에 當하는 武裝團體가 濫立되고잇던바 軍政部各關係當局과 愼重協議한結果 三月一日 一切의 武裝團體를 歸屬케하고 國内一元的統制에 中央集權下의 治安維保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엇다 決定要旨는 如左하다

一、治安維持에 當하는 一般武裝團體運用과 武器管理、編成改革等에 關해서는 軍政部에서 統制함

一、縣警察隊를 軍政部에 移管하야 治安隊로함 縣警察隊를 廢止하고 그所屬全員을 治安隊에 編入함 但 半數一萬五千은 行政警察에 充當함

一、興安南、西兩省에서는 旗警約一千四百을 熱河省과 民政部管下에 蒙旗에서는 蒙旗保安隊約一千名을 軍政部에 移管改編하야 治安隊로함

一、警察費는 國庫支辨으로하야 地方當局의 負擔을 輕減함

八面鋒

◇艦齡延長이 안되는境遇에는 卽時 代艦建造에 着手하겟다고 米海軍委員長이 聲明。

◇二日의 十八國委員會、石油制裁가 또호지부지。

◇한참當年에 中國將軍들이 通電政治를 하더니、只今세상은 여기저기서 聲明만이流行。

◇先聲이라도 놉혀노아야 實際交涉이 有利하리라고、作戰만은 틀님업는일。

◇데비스米全權은 英國의 傀儡라고、下院議員이 怒發大發。

◇쉬─非常時에는 國論統一이 第一이오、米國兩班들 조잠으십어 엇더오。

力强 男性ホルモン アンドロスチン
안도로스진
─潑剌한生氣─
精力을 旺盛케하며 精神力을도읍고 疲怠를除去하며 作業能力을增進식히며 老衰를막고 또는 性的神經衰弱·身心에따르는 諸障碍에 適當된다
去勢鷄의 鷄冠發育에 依한호루몬檢定法에 依하여 本劑를 給與한去勢鷄(向左)와 給與치안흔去勢鷄(向右)
本劑는 新鮮한 雄性生殖腺의 全有効成分(成溶性及 脂肪性호루몬類)을 包含하며 生物學的 檢定下에 効力을一定하게하며 世界各國의 醫學界의 賞用되고잇다

●注射液·錠劑●
内服用 錠劑에도 顯著하게 그効力을 發揮함
文獻은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内 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 日本學術部에서 郵呈
日本總代理店 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小西新·島田·三共
有名藥店百貨店藥品部에 잇슴

조흔家庭工業 돈버리
最高의社會의意義잇는大事業紹介

第一 第二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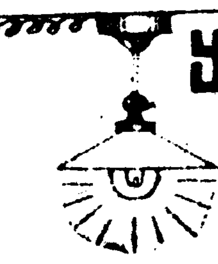
淸導補腎丸
性器强大靈藥(說明書進呈)
中國瑞廉士大醫生四十年研究大名藥
▲藥効!!
男女生殖器短小、早漏、遺精、夢泄等性的不滿으로家庭에悲運을當하시는이 아非一非再! 一週日만連服하면暑가든性慾의不知中에暴發되며家運의衰退를回復하고○○의健康은不和한家庭을平和케함

感謝狀의山積 服用十日에百發百中의名藥
定價=半個月分三圓·一個月分五圓半(先金注文送料負擔)
東亞公司
滿洲國安東縣江岸通三丁目三九 振替京城二一六四二番

朝鮮唯一 認可電醫

養成
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되다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尊敬을受하고皆成功함
希望者에게는學則、内容書送呈·藥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永樂町岩永醫院側

出現!



農家에大福音電氣 蓄電氣의新發明
暗黑한農村을光明한都市로
經濟되고停電업고光力은自由로五燭부터六十燭까지永久히使用할수잇다
各道各郡特約代理店大募集(カタログ進呈)(三錢切手要)
代理店希望에依하야社員出張함
地方係 趙東熙 朴種殷
光明式蓄電池 總發賣元
光明電氣商會
平壤府新陽里一〇八 崇實講堂下側

八倍五倍의障壁을너머 多難한 青春 障害物競走

希望은白雲바께 더욱놉건만 冷淡無情한 "鐵의校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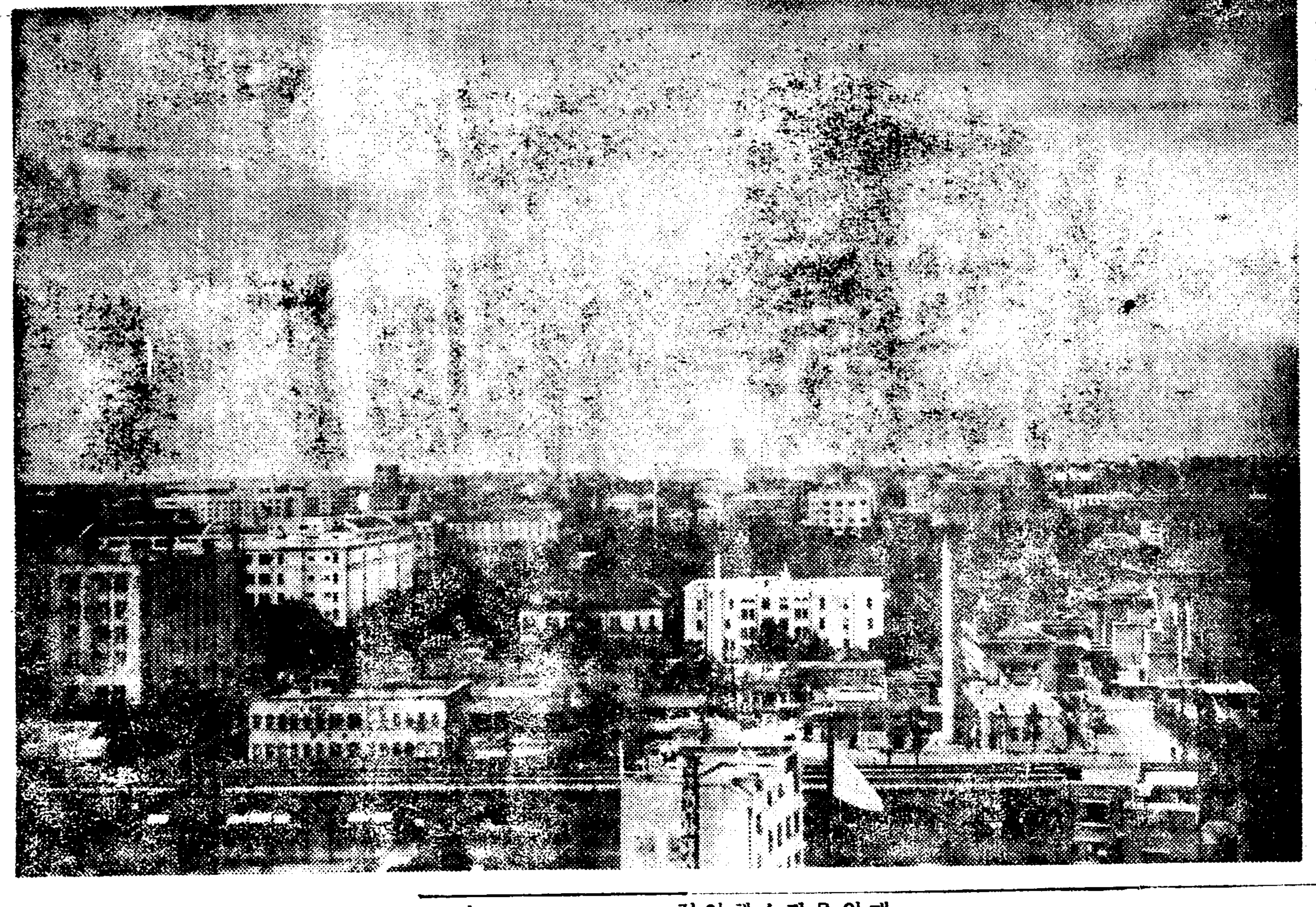
官學難·入學難

오년동안 중등학교에서공부하야 기뻐게 졸업하고 다시 상급학교에 드려가려면은또 또 다치게되는것이 입학난(入學難)과 시험지옥이다 이것은 학교가부족한 조선의특수현상으로 해마다 조선청년학도들의 당하는고통인데 이제 서울안에잇는 다섯곳 관립전문학교의 입학지원자수효를조사해보건대 특별히 작년보다 더만하서 그경쟁률이 심하게 되엿다 모집원에대한 비례를 따저보건대 경성제국대학예과(城大豫科)는 팔배가 훨신넘으며 고등공업학교(高工)는오배가 훨신더되고 고등상업학교(高商)도 오배가 훨신더되다 그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專)는 칠배가 훨신더되며 경성법학전문학교(法專)는 팔배는 채못되고 칠배는 훨신 넘는다 고등공업학교지원자 가운데는 특히 토목과(土木科)지망자가 만하서 입학지원자 총수에 대한 삼분지일이상이나되여 일백사십육명에 달하엿다한다 이상각학교는 지난 이십구일까지에 입학원서 밧기를 마음하엿는데 우편으로 온것까지 합하야 이일까지에 전부정리한 정확한 수짜를조사하엿다

▲學校別	今年入學志願者數	(昨年志願者)	募集定員
▲京城帝大豫科 文科	四六四	四三三	八〇
理科	三九七	四六六	
▲京城高工	四七〇	四〇三	八〇
▲京城高商	四五一	四一九	八〇
▲京城醫專	六一七	五六二	八〇
▲京城法專	四六八	四七〇	六〇

地下의男便을代身해 野中未亡人聲明

"비록信念이나오직罪悚할뿐"



[東京電話同盟] 자결한 전대위야중사랑(野中四郞)의 시체는사곡좌문정(四谷左門町)으로 돌려보내여 그의부인 미보자(美保子)(二)의수위아래잇든중 이일부인은 다음과가튼 취지를발표하엿다

이번 저의남편이 큰불상사를 일으키어 폐하의어신금을 괴로웁게하고 넘려를하시도록 하야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번사변으로 희생된 고위여러분을 위시하야 경찰관여러분께 무엇이라고 죄송한말씀을엿주을찌 모르겟습니다 죽은저의 남편도 사죄를 하고잇슬줄로 밋고잇습니다 저도 황군의한사람인 저의남편의처입니다 남편의하는일이 정당하다고 미더오든중 이와가튼 불상사를 이르킨것에대하야 무엇이라고 말할줄을모릅니다마는남편이한것도 나라를 생각한결과 이번의 사변을 이르킨것으로압니다 남편은 모ㅣ든 책임을지고 자결을하엿습니다 저는그의처로써 죄송스러운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며 압흐로 다만 깁히깁히 근신을 할작정입니다

引責自殺한 天野少佐邸

意外의일에 一家悲歎

[東京電話電通] 바란부대를 귀순식히라고 권고하엿스나 목적을달치못하고 책임감을 이기지못하야 자살한 고천야무조(天野武助)소좌의 삽곡(澁谷)자택은 이일밤 고요한어둠속에 슬픈고요이 더한층무거워잇섯다 유족은 어머니되는『요시꼬』를 비롯하야 미망인문자(文子)(三) 장녀 풍자(豊子)(十) 차녀부자(富子)(六) 장남 수준(秀俊)(三)의 다섯사람으로 사건당시까지 씩씩하게잇던 소좌의얼골을 생각하면서 눈물에잠겨잇다

山本元大尉 位勳返上

[東京電話電通] 내각(內閣)에서는 작이일 면관(免官)발령을한 원보병대위(元步兵大尉) 산본우(山本又)가 가지고잇는 정팔위와 반상(返上)을명하는뜻을 삼일발령하엿다 훈칠등(勳七等)서보장(瑞寶章)과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도 체달하엿다

就職難을 自殺로解決?

실업을 자살로해결하려고 하사나히가잇다 시내련지동(蓮池洞)칠십칠번지 백조기(白祚基)집에 유숙하고잇는김기수(金基洙)(二七)는 이십구일아츰 집을떠나 드려오지안는다는데 그는 작년이래실업에 괴로움을맛보고 잇스면서 매일가치 거리로 일터를 차저대겟스나 남은것은 피로와 실망뿐이여서 이의 자살을결의 한모양갓다는데 본정서에서는시내각경찰서에 수배중이라한다

全州新興學校

落成式과卒業式

전주신흥학교(全州新興學校)에서는 그동안 건축중이든 대강당과체육관(體育館)이 준공되엿스므로 오는 [illegible]부터 그학교에서 성대하게 락성식을거행하고 이와함께졸업식도 거행하리라한다

本據는刑務所라나 娑婆에는잠간漫步

前科四犯君또犯行

잠간 사파(娑婆)를 산보(散步)하고가는 운수사나운도적!삼일오전네시경에 시내 인사동(仁寺洞)에서 종로서원에게체포된 절도홍국(洪國)(二)은 지난달이십구일에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네번째 형인 사년을마치고 출옥한사람으로 형무소에서 버러가지고나온 작업상여금(作業賞與金)몃십원을 용돈하는그날부터 질탕히써버리고 이일 오후엽한시부터 시내룡산서압해서 외투한벌을도적하기시작하야 그대로절도질을해나가서 본정(本町)이정목에서 양복엽벌을 도적하여가다가 야경군에게 들켜서 그대로도망해가던중 도시내인사동이백륙번지리형긔(李亨基)의자회상에 침입하려다가 결국종로서 남(南)순사에게발각되여 도망과격투를해보고는 붓들리게된것이라고한다

漸漸더貪慾한炎魔 二月中 五萬餘圓을燒盡

昨年同期보다 勿驚九倍激增

지난 이월한달동안 서울에서 화재발생건수는 도합이십칠회에 그손해총액 오만이천삼백삼십원의 거액에 달한다한다。 이것을 작년동월에 일어난삼십륙회에 그손해 오천백칠십칠원에 비해본다면 회수로는구회가 줄엇스나 금액으로는 실로사만칠천 백오십삼원이란 약구배강한 격증을 보이고잇다。 그리고 지난 소화십년도의 화재 건수는 백구십구회에 그손해륙십오만 사천사백사십구원으로 이것을 지지난 소화구년도 이백삼십사회에 그손해 총액삼십만 팔천사백륙십오원에 비해본다면 건수로는 삼십오회가 줄엇다하나 손해로는 삼십사만오천구백팔십사원이 격증되엿다한다。

一高新築費認定

新年度에爲先十一萬圓計上

總工費卅萬圓으로來年完成

제일고등보통학교(第一高普)교사는 건축한지가 너무나 오래서 협착을 늣길뿐아니라 목재로서 회재의 위험이만흔것등 여러가지점으로보아 개축할 필요를늣기고 당국자는 수년전부터 개축운동을 하여오든중 드듸여개축총공비 이십[illegible]만여원중 명년[illegible] 인정되엿슴으로 방금 개회중의 도회(道會)의 협찬이 끗나는대로 곳공사에착수하야 래명년에는 교사전부의신축을보리라한다

무지한무쇠도적

부내봉래정(蓬萊町)이정목 이백팔십구번지 마차부 안기호(安基鎬)(二)은 지난 이월이십칠일 오전열한시경에 경성역 화물도착실(京城驛貨物到着室)에 들어가 역원이업는틈을타서 사십관(시가팔원가량)되는 선철(銑鐵)을 절취하여가지고 그날오후네시쯤해서 의주통(義州通)이정목 일백칠십오번지 박권모(朴權模)의경영하는 고물상으로가 팔려고하엿다 그집주인이 그의거동이수상함으로 의심을품고 경관에게통지를하야 결국룡산서원에게 체포되어다한다

新年度부터 京城府는 四百萬圓債務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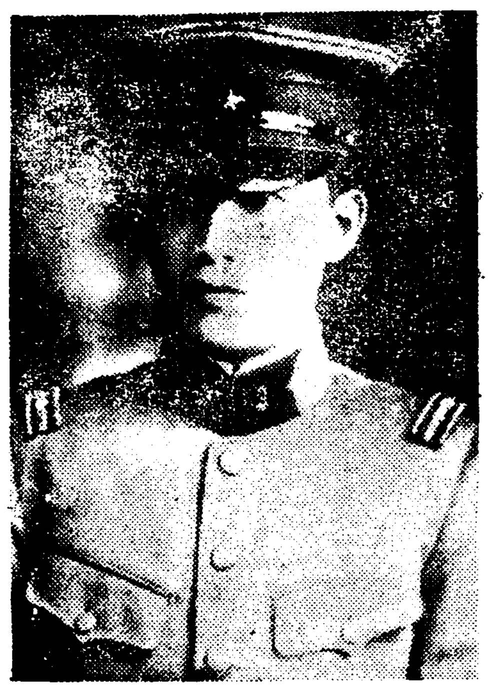
府民每人平均十五圓의負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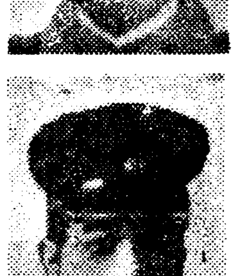
"조곰어께가무겁군"

재정난으로 부정이 궁지에빠저잇는 경성부는 대경성의 실현을압두고 더욱부채가 평창하여가고잇다 현재의 부채액을보면 소화십년말 현재로 갑지못한부채의원금이 이백륙십만칠천원 이엇는데 신년도에다시 기채할 예정액이

▲남산주회도로(南山周廻道路) 이십만원▲하수구개수비 이십만원 ▲수도확장비 륙십오만원 ▲시구개수비 삼십오만원 ▲묘지이장비 팔만오천원 ▲합게일백사십팔만오천원이다

그러나 신년도의 기채항목을보면 수입재원이잇다 남산주회도로비가튼것은 도로가되면 남산록에잇는 부유지를 고가로불하하여 충당할수잇고 수도확장도 당연히 수도사용료의 증액으로갑흘수잇슬만한 것이어서 이런종류의 긔채는 어느정도까지부세확장을위하여 당연히잇서야할 긔채로자연의 추세에맷길것이겟다 그러나 십이년에들어가면 대경성을위한 시구게획에의한 일반도로망의 완성에딸아 토목비가신규로 평장히늘어날터임으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부채가팽창될모양으로 지금부터 부의재정에는 각별한용의가 잇서야할모양이다 그러고 전기일반회게의부채가 신년도에는 사백구만이천원으로 될터인데 제일부교육비의 일백사십만륙천원 제이부교육비구십오만상천원을합하면 륙백팔만이천원으로 사십만부민에따지면 매인십오원 이십전의 부채를가진셈인바 일년동안에 합게이백만원의 부채가 는터임으로 매인에일년간 약오원가량증가될셈이다





◇寫眞說明【上으로부터】 四日만에 비로소 平靜에 復歸한 東京市全景 自決한 野中元大尉、香田元大尉、安藤元大尉、栗原元大尉

"學園"을파는무리

幽靈教育者畢竟被檢

시내 서대문서(西大門署) 고등게에서는 수일전부터 시외신당리(新堂里)에잇는 모학원경영자 안독성(安獨成)(假名)안성일(安成一)(三)등두명을 검거하야 방금 그처에서 엄중취조중인데 전긔안독성은 공갈(恐喝) 전과까지잇는 사람으로 작년부터 그학원을 구실로하야 시내의 각학교와 부호들에게 긔부금을 거두어가지고 거진다사복을채운혐의라는데 그피해액이 약어천원가량이나된다하며 그서예서는 이러한불량배들이 신성한교육사업이라는 탈을쓰고 그러한 사긔행사를하는것은 일반을위하야 용서치못할것이라하야 단연처벌하리라고한다

十七人乘旅客機

空輸會社서製作

[前橋電話電通] 일본항공수송회사의주문으로 군마현 태전정(群馬縣太田町) 중도(中島)비행기제작회사에서 제작중이든 일본최초의 대형려객기(旅客機)십칠인승『떠글러스·부사호』(富士號)는 이미완성되여 미도정(尾島町)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을 해보앗는데 어번에는 다시 항공수송회사대삼(大森)일등비행사의 손으로 시험비행을 한뒤 오는 오일오전아홉시 비행장을떠나복강(福岡)으로 공중수송을 하기로되엿다。

結婚危機너무려 "모던·노라"가出奔

시내 림정(林町)팔십오번지리우원(李宇元)(三)의처 명신춘강(鳴神春江)(三)은 이알오후 세시경 여덟살먹은 아들을 버리고 어듸로인지 행방불명이되여 본정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어보건대 그들은 십여년전 리우원이가동경 유학당시 객창에서 얼매인실마리로 부부가되여 사려오든중 제일기 부부생활의위기는 무사히 돌파하엿스나 오직 한나밧게업는 아들을다리고 자미로운 생활을 계속하여오든중 수년전부터 부부생활에 흠집생겨 이래 가정파란이 뒤니여 이러낫다는데 인제야 떠는게상흐간에서 격적결합과 생활방식의 차이를 로골적으로 표명하며 중년부부생활의 위기를 정복지못하야그와가리 아혜는출분하고 마럿다는데 어린아히다리고잇는 아버지는 안해가 돌려로도라오기만 기다리고 엿다고한다

普成、培材、儆新、協實

今日四校卒業式

부내보성고등보통학교(普高)와경신(儆新)학교에서는 삼일오후한시에 협성실업학교(協實)와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이날오후 두시에각각 그학교강당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보성고보는일백십팔명 경신학교는 사십삼명 협성실업은 오십명 배재고보는일백사십이명의졸업생을 각각내보내엿다한다

여도大京城의憂鬱相

자못活潑한葬送曲

今年中七百五十件豫想인데 一月末에벌서萬件突破

저세상으로가는 손님이 금년에는 어쩐지 예상이상으로 늘어가고잇서 화장터를 향하야 무화재를 넘는 섧어운 장송곡은 더욱 어즈러워가고 잇는한편에 경성부에는 예상이상의 수입이 늘어가고잇서 뜻하지안흔 버리에주머니를 불리고잇다 소화십변도 장재비(葬齋費) 예산으로 보면 약칠천오백건에수입 이만삼천일백십륙원으로지고 그에대한비용으로 일마흑천사백이십삼원으로 예정하엿더니 벌서일월말현재에 화장터로 나간것이륙천칠백구십구건으로 압호로 이월、삼월달에가면 약일만건이될뜻함으로 이에대한 지출비용을 더게상할 필요가잇서 삼천사백팔십원을 추가예산으로 오는구일에열리는 부회에 상정하리라한다

그러케춥드니만 酷寒新記錄作成

昨冬中江鎭最低氣溫零下四十度八

降水量은例年의半以下

이번겨울의추위는 글자그대로살인적추위가 계속하야 관측소의 발표를보면 전조선각지의 평균긔온은 십이월과일월두달이모다 이도내지사도식 야릇스며 이월에도 약이도내외의 저온이계속되엿다 제주(濟州)대구(大邱)중강진(中江鎭)울산(蔚山)등지에는 이월중 저극긔온(低極氣溫)의신긔록을지어 중강진은 빙점하사십도팔분이라는 그야말로 경이적극한긔록을지어 이긔록이 이번겨울을 전조선의 최저긔록이되엿다

그리고이번겨울의 이상한현상은 비와눈 즉강수량(降水量)이 적은것으로 어번겨울삼개월동안의 강수총량을 평년강수량에 비교해보면 중부지방은 겨우 삼십내지 륙십퍼센트에 불과하며 척량(脊梁)산맥의 동쪽일대는거이 눈비가오지안하야 강릉(江陵)가튼곳은 평년량의 이십칠퍼센트박게오지안하고 원산(元山)부근에도 거이 눈이오지안하야 이월중순까지는스키는조차하지못하엿다 여하튼 이번겨울은 몹시춥고음시 가물은겨울이엇다

탁시轢人

일일 오후다섯시반경 시내창신동(昌信洞)사백사십칠번지의사 정인섭(鄭仁燮)(二)은 경(京)구천이백륙십구호를몰고 룡산으로 가든중 태평통(太平通)이정목삼백오십일번지압 도로에서 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이십칠번지 초전(初田)『마쓰노』(二)를 치여 꼿의전문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에는별반관게 업스리라한다

住宅地의撰定은 昌信洞安養峯下住宅地로 文化的設備完備 眺望絶佳 南向 安養峯下土地經營事務所 昌信洞一三八番地 電光二九二一

平壤水玉里 電話一〇六五番 水玉産婦人科 院長 醫學士 李麟杰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日本海東部에잇고 高氣壓은 北中國에 七七六미리를 보히여 이곳으로부터 氣壓은 朝鮮을 지나日本方面으로、얏게빗기고잇는데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도高氣壓이엇다 滿洲와 朝鮮은 大陸系이고 湖南地方은 若干 눈이오며 本州를 一般으로흐렷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개인다 明日도갓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三度四

最低 零下十三度七

今朝最低 零下十二度一

今日正午 零下四度九

1936年 東洋氷上十傑

白狗俱樂部發表

【五百米】(世界最高43秒4)

順位	氏名	타임
1	石原(日)	43秒5
2	中村(同)	45秒0
3	李聖德(朝)	45秒1
4	南洞(日)	45秒4
5	金正淵(朝)	45秒7
6	河村(日)	46秒1
7	三代(日)	46秒4
8	崔龍振(朝)	46秒9
9	安藤(日)	47秒2
10	安重熙(朝)	47秒3

【千五百米】(世界最高2分17秒4)

順位	氏名	타임
1	金正淵(朝)	2分25秒0
2	石原(日)	2分26秒7
3	河村(日)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7	[illegible]	[illegible]
8	南洞(日)	[illegible]
9	[illegible]	[illegible]
10	張日弘(朝)	[illegible]

【五千米】

順位	氏名	타임
1	[illegible]	[illegible]
2	[illegible]	[illegible]
3	[illegible]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7	金永淵(朝)	[illegible]
8	南洞(日)	[illegible]
9	李仁鎬(朝)	[illegible]
10	安重熙(朝)	[illegible]

【一萬米】(世界最高17分17秒4)

順位	氏名	타임
1	金正淵(朝)	18分03秒7
2	李聖德(朝)	18分50秒3
3	張祐植(朝)	19分00秒1
4	李仁鎬(朝)	19分03秒3
5	安重熙(朝)	19分19秒5
6	安藤(日)	19分29秒7
7	朴鍾河(朝)	19分41秒3
8	崔龍振(朝)	19分41秒5
9	木谷(日)	19分42秒5
10	金永淵(朝)	[illegible]

訃告

正七位前判事高公運河以宿患今月廿八日(陰二月六日)午後八時別世玆以告訃

發靷 昭和十一年三月五日(陰二月十二日)午前九時月下里自宅

永訣式 式場 鐵原邑東鐵原驛前

時日 昭和十一年三月五日(陰二月十二日)午前十一時

葬地 鐵原郡東松面觀雨里先塋下

昭和十一年二月二十九日

嗣子 孫 姪 從姪 從孫 甥 親戚代表 友人總代 護喪

洪熙 熙熙重大達源徳逢德栗鍾鍾鍾熙熙熙熙 … 權旭德國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

私の兄さん 林長二郞、田中絹代 果然時代劇의스타ー林長二郞氏가 現代劇登龍門의光彩를빗낸傑作

로이드의발이第一 자미스러운名作喜劇王로이드의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現代劇 監督 島津保次郞

잘잇거라海軍兵學校 愛艦과함께生命이사라지는悲壯한其決意 그리고老勇士의意氣! 바다의武士道를描寫한空前의名作品 파라마운트社超特作新作日本語版!

日本版 監督 아레키산다ー코ー르다

파라마운트社本年度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三月四日부터五日間正午十二時부터七時始映六時까지繼續封切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第一劇場 鍾路丁目 電光二四番

여러분의 すみれ娘 主演 宮川、鮮明한 新春에諸氏께돌이는一篇! すみれ娘!! 사랑

未來派女學生 主演 알비ー다ー공孃 종스스테프링氏 코로만스의完璧!! 音樂豪華版映畫!! 米國FRO社特作無聲版

國際喜劇호텔 主演 W·C후이르스氏 PC후이르스氏 우에노演技!珍技!珍妙의喜劇王!抱腹!破腹!! P·D·L超特作全發聲版 山本嘉次郎 監督

파라마운트社全發聲日本版 에드·와드사와랑드氏 監督

七時半始映 每日三回興行十二時、三時半、 大衆料金階上席十五錢、階下席十錢均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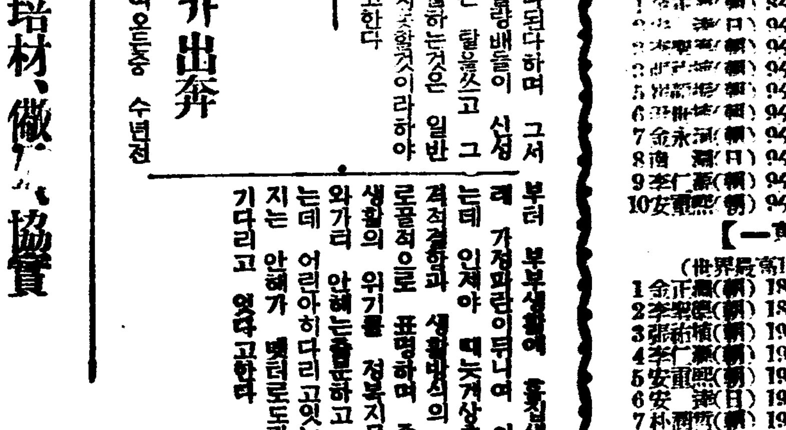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 勤人學生副業最良 收多無休 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內科チストマ 로질 十二指腸虫 채독 科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二貳番

당채색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一八八番 振替京城八〇二四番

◆辭典拾冊合本一ペタの一圓 分冊十五冊 各册は十五錢◆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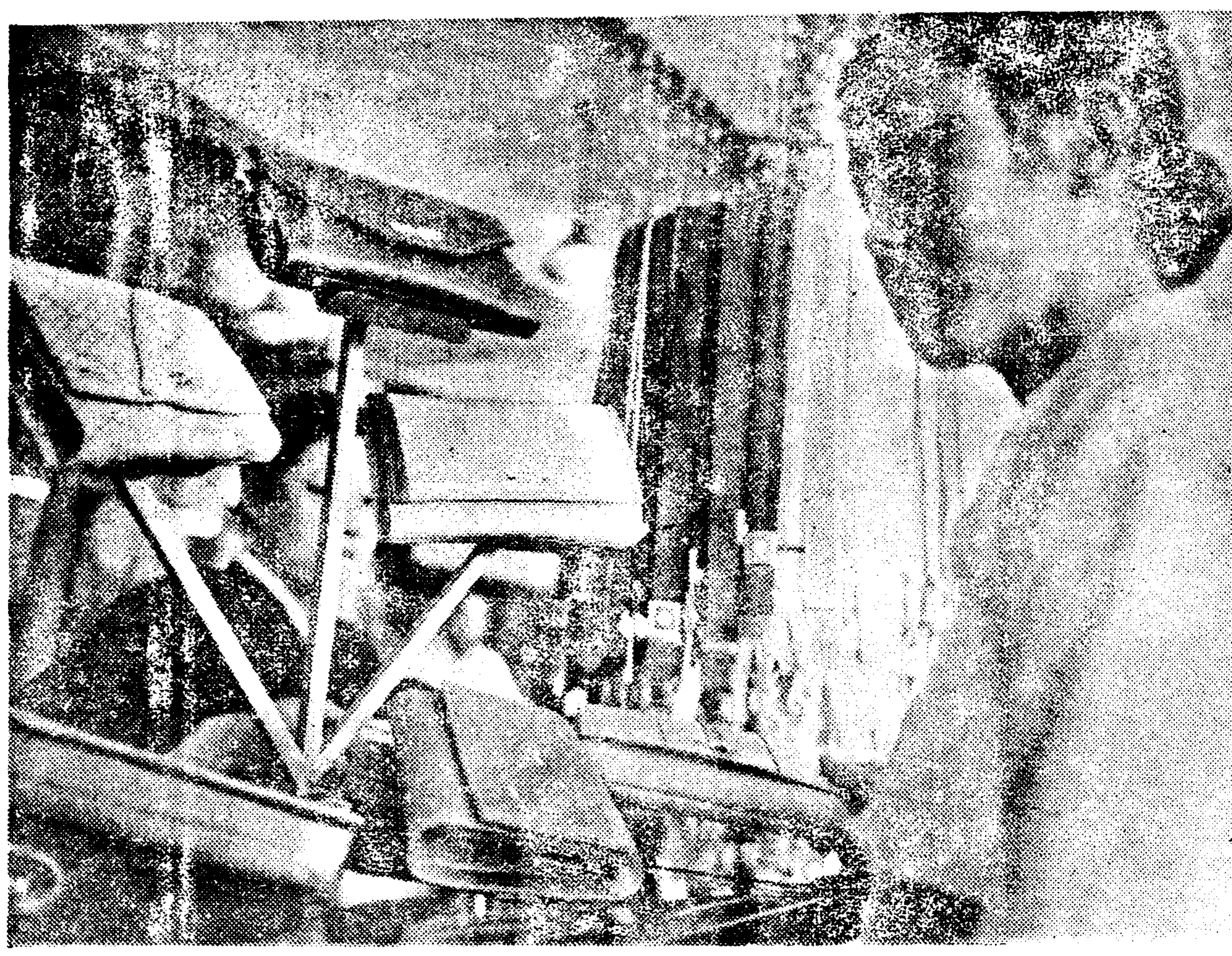


一冊宛の分賣は各冊五十錢前金(郵稅共)に限る ●大好評!續々到着

特別進呈品 無代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스타ー들의
絶對로支持하는
レート粉白粉
新春의낫化粧에는
식크한レート
近代的인肌色으로
한번슬적明朗하게
빗나는青春의메ー크압푸!
「あなたと呼べば」에서 新春의人氣를集中하고잇는 日活玉川의名花
거름나서면봄소식!
여レートクレーム한瓶을
발르겨만하면고솟들에도!
산에도 봄! 나의봄! 그대의봄!
CREME LAIT
P·O·L의明朗한氣分을代表하고잇는 堤眞佐子孃
『あきれた連中』에出演하여
참으로 明朗하여진이光景
梅花一輪의香春
每日아츰마다당신의
살결을艶潤하게하여주는!
거츠름防止에
白粉下에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肌色・濃肌色・オクール・白色의四種
粉白粉 各二五錢・水白粉 各三〇錢
レート 水白粉
LAIT
東京
平尾賛平商店



봄 철이반갑기는 풋나물의 첫정

바구니로캐어논촌가의『봄소식』 솜씨잇게 해잡숩시요

차차로 구미가돌고 음식맛이 날때올시다. 보약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람은먹는것이 제일이니 이런때잘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음식이란 솜씨나름으로 갈답니다. 멋처럼돌아서는 구미를 고만더치어 버리는수도 업지를안커니와 안돌아서는 구미도 회복할수가 잇습니다. 인제조금만 더잇스면 산나물 덜나물 맛나물등 신선한반찬이 나오지를안습니까? 그런것을잘만 다루면야 맛나다뿐입니까만도 잘못해서는 도리어 입맛만 버리지말란법이 잇습니까? 거긔대한 요리법을 한번 엿주려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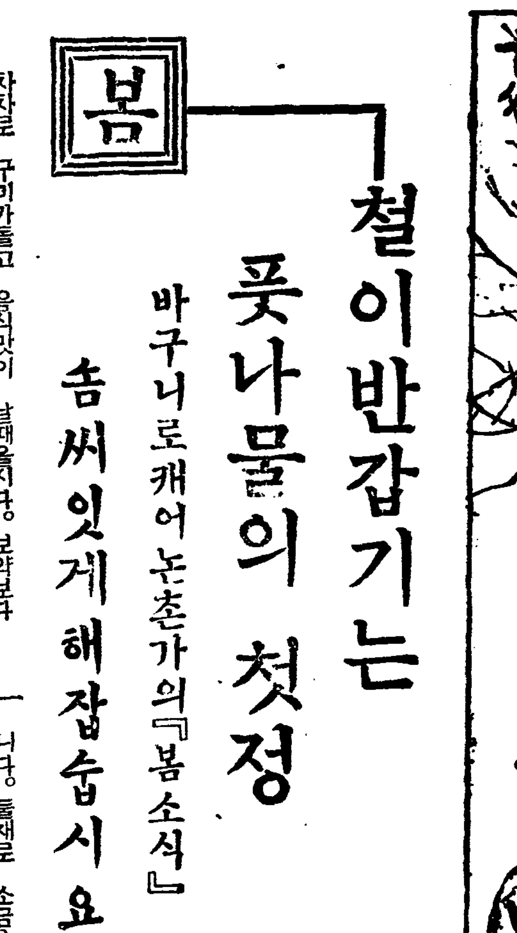
첫재로 풋나물이나 푸성귀는 다듬기를 잘 다듬고 씻기를 정하게 씻어야 합니다. 만일 먹다가 흙이씹히거나 검부젝이가 나와서는 아주 재미업습니다. 둘째 또 그런것을 양념을가초 너코 무치기를 잘 무처야 합니다. 기름, 깨소곰 고추ㅅ가루등에 하나라도빠저서는 맛이 업습니다. 그야 다 아시는 일이 아니오니까? 새삼스러이 설명할것까지도 업지 안습니까 그런데 꽉 이저버리지 마실것은 초를 조금 체야할것과 고초장을 조금 풀어너흘 것입니다. 또 그뿐이아니라 마늘이나 파를 다 씨서 너흐실때는 미리 끌는물에 한번 데치어 내가지고 다시 너흘것입니다. 간장은 물론 보통간장보담 진간장이 조치요. 아조 잘하려고 생각하실때에는 미리맛난지를 맨들어 가지고 그 간장을 쓰도록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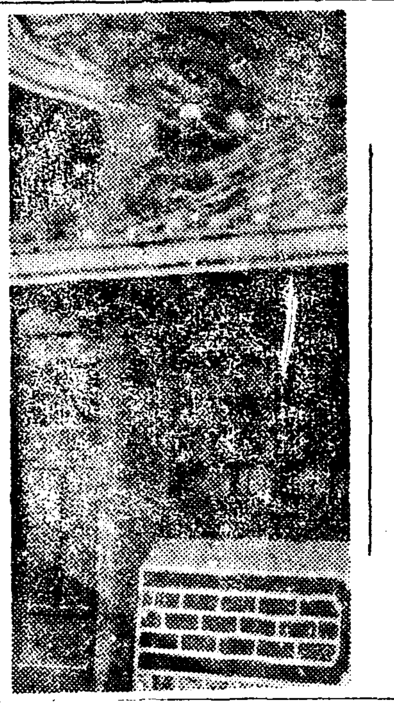
×

그런데 날로 자실때도 잇지만은 데치어 자실때도잇도 묘리가 잇슴으로 마구 지를 안습니까? 데치는데도 데치어서는 안됩니다. 위선 억센것을 설데치어서는 데친보람이 업고 어린것을 밧작 데치어서는 모다 녹아 버리고 말것이 아닙니까. 그와가치 데치는 정도도문제려니와 그나머지도 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첫재 물을 만히붓고 미리 펄펄 끄리어 될수잇는대로짜른시간안에 데치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적어서는 고루 데처지지를 안코 넘우 오래 두어서는 맛이 업습니다. 둘재로 소곰을 조금 타고서 뚜껑은 덥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케 안해서는 빗갈이 꺼머케 죽어서 볼품이 업서집니다. 단지 싱검초는 상관이 업습니다. 그것은 본래 철분을 만히 포함하고잇서서 다시 소금을 너흘필요도 업는까닭입니다.

×

그러고 흔히 채소를 데치고는 그물을 내던집니다만은 그래서야 아까운 자양분을 만히 일허버리게 되지안습니까? 그 국물을 국이나 찌개로 이용한다면야 아조 조흘것이 아니겟습니까? 그러나 죽순과가튼것은 그 데치어 낸물이 떫습니다 물론그런 것까지도 내버리시지말고자 시도록 하라는것은 결코아니올시다 또 그러고 채소가 물론 신선은 하지오만은 채찬만은 아모래도 입맛이 넘우 가볍습니다 채소로반찬을 맨들때 고기반찬을 짝지어 맨드신다 면양편이 다생색이 날것입니다 만일 고기반찬을 이로 하시기 힘드시거든 고기기름으로 나물을 무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깨기름만 먹을줄아는 우리네는 재미업게들으시겟지만은 조금도 맛을 나뿌게할리 만무합니다





굴뚝잘못모시고 낭구더드는걱정

굴뚝의이대사명을모르신다면 언제까지나손해봅니다

란로나 목욕가마에 연돌을달줄을알지만 그것을 웨달며 어떠한점에 주의를 하지안흐면 안된다는것을 념두에두시는분은 퍽적은모양입니다 직 불완전연소(不完全燃燒)에 따라오는 연료비(燃料費)의 큰손해를 생각지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연돌의 중대한 사명이 잇습니다

까스배출과산소

연소의 결과로생기는 불필요한 까스를 배출식히는 동시에 신선한 공기 직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통풍(通風)의 구실을 하는것이 연돌입니다 (음밀히 말하면 탄소(炭素)십이 끄람을 완전히 연소식히기 위하야서는 삼십이끄람의 산소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연돌은놉하야해

그런대 이상의 둘은 완전히 식히기 위하야서는 위선연돌에는 일정한 노피가 필요합니다. 아시는바와 가티 연소까스는 더워저서 대단히 가볍게됨으로 우으로올라가서배출되게됩니다 이경우에 연돌에 상당한 노피가잇스면부력(浮力)도 만하저서 쉽게올라가게되고 배출도 잘됩니다 따라서 새공기도 잘들으게되여 완전히 연소되는것입니다

적당한노피는?

그러면 연돌은 노프면 노플스록 조흐냐하면 결코 그러치는 안습니다 너무 바람이(새공기) 잘들으면 완전연소는되나 필요한 열(熱)까지 가지고가게됩니다 그런고로 보통가정의스토-브에나 목욕가마에는 이간(間)내지 이간반쯤되는것이 적당할것입니다 목욕가마가크면 클수록 스토-브가크면 클수록 삼간내지 삼간반가량쯤 될수잇습니다

만약가로달면

그러고 부력(浮力)을 잘리용하기위하야서는 연돌은 똑바른것이 이상이며 만약 필요에의하야 가로(橫)노치안흘수업는경우에는 될수잇는대로 가로의부분은 짧은것이 조습니다 그러나 스토-브의 놋는위치나 방사열(放射熱)을 증가식히기위하야 연돌을가로둘때에는 이에따라서 종(縱)의기리는 길게하거나 굵게하야 통풍(通風)이 잘되게 해야합니다 횡(橫)에 대하야 종(縱)은 일배반 직 횡이일메돌이면 종은 일메돌반) 그리고 이박게주의할것은 연돌의 굽은곳이나 이자리에구녕이 업도록해야 합니다

불완전연소의발견

꿋흐로 완전연소가 되나 안되나의 감정은 엄밀히 하자면 연돌에 나오는 까스를 분석하야보아야하는것이나 보통으로는 거문연긔가 만히나오거나 꺼름이 만히 끼이는것은 탈것이안탄증거인대 직 연소될 탄소의 미립자(微粒子) 나오는까닭입니다

봄 先發隊

—봄은한가합니다—

빨간색 하늘색 자주색 한드빨들이 유리를넘어들어오는 릿한해볏을 감촉하면서 옹긋송긋이마를맛대고 장차의자긔운명을다진합니다 『얘 너엡부고 갑이만흐니까 유한매담이나 기생아씨들한테갈테지만 난 못나고 게다가갑까지싸니 어느 허줄한 직업부인손에서 모즈라 떠러지기까지 성화를 바들밧게업겟구나』

세척잘못하다가 되려병을엇는다

—간단한장궁세척법—

城大醫學部産婦人科敎室 金錫煥

목욕하는습관이 별로 보급되지아니한 우리조선에서도 어느계급을 물론하고 부인네들의뒷물하는습관만은 상당히 일반화되야잇는대 그뒷물을 잘못할것 갓흐면 오히려 해를 보는수가 적지아니함으로 그에대하야 멧가지 주의사항을 써보려합니다 부인네들이 뒷물을쓰는것은 보통 아래에서나오는 냉을 업시하거위하야 쓴다는것은 말할것도업스나 소위 그냉이 나오는 원인은 천차만별하야 일률로론지할수가업습니다 따러서 냉ㅅ증의 료법의 하나인 뒷물하는 방법에 잇서서도 각각달너질것은 당연한리치입니다.

냉이 나오는 원인에대하야는 본보지상에 임이 발표한바어니와 질(膣)ㆍ자궁(子宮)ㆍ란소(卵巢)혹은 나팔관(喇叭管)등에 염증이 생겻슬때라든지ㆍ또는 란소의작용에 이상이잇는때와갓튼 생식긔에 병이잇는때이외에 전신적 병이잇는 부인에게도 역시 불수잇는동세입니다.

염증에는 급성과 만성의 두가지로 나누어볼수잇는대 급성때에는 대개 신열이나며 밥이되야도 잘몰이루지못할만큼 몸시압퍼서 고통을늣기게되나 차차시일이경과함에따러서 열도 업서지고 또 그리몹시 압흠을 늣기도안는 만성긔에 도달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별로 고통이업시 염증이 생기는병이잇스나 례컨대 결핵(結核)매독등 입니다.

보통 결핵이라고하면 곳 폐에 생기는 폐결핵만을 연상하기가 쉬우나 부인네들의 자궁내막염도 역시 이결핵균(結核菌)으로 말미아마 생기는례가 상당히 만히 잇는것입니다.

임질균에 의하야 생기는 염증은 처음에는 급성으로 오지만은 차차 만성으로변하야 아무고통도 늣기지아니함으로 병이 완저되얏다고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대 냉물이나오는것은 급성긔에나 만성긔에나 다갓치 나오지만은 만일 급성긔에 뒷물을 잘못쓰면 오히려 병이 퍼저서 큰고생을 하게되는때가 잇스니 례컨대 급성임독성 자궁내막염이 흑은 질염이 잇는때에 뒷물을 하면 자궁우에붓터잇는 나팔관까지 병균이 올나가서 필경나팔관이 끌마서열이나고 아래ㅅ가배 몹시 압푸게됩니다.

그러케까지 병이 쇠하야지면설혹 병이 나혼다하더라도 임신이 불가능하게됩니다.

그럼으로 급성때에는 뒷물을하는것이 아니고 만성으로 되엿슬때에 각기 병세에 따러서뒷물을 쓰는것이 조습니다.

뒷물에 타서쓰는약은 선택하기에 어려우만큼 아주 여러가지가잇지만은 『소곰』『리조-ㄹ』『단닝산』『유산』(乳酸)등이 보통이겟지요 가정용으로 맨들어서파는세척긔(洗滌器)에 그런한약을 풀어서 쓰는것이 제일 리상적이겟지만은 그런긔게가 업스면 약물을 대야에만쓰도록 정해노코쓰는것이 위생적입니다.

그대야에 개끗한물을 반절쯤 부어서 팔팔끌인다음에 웬만큼 식혀가지고 그물에 우에말한약을 풀어노은다음에 개끗한탈지면(脫脂綿)을 손가락에 감어가지고 약물을 적서서씻는것입니다 약물의온도는 사십이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라 하지만은가정에서 일일히 온도를 잴수는 업는 일임으로 자기자신이 손짐작으로 뜻뜻한물을 선택하야써도 관계업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찬물을쓰는것은 너머나뜨거운물을 쓰는것보다도 더해로운것임으로 온도가나 차운물은 쓰지아니하도록하는것이조습니다.

그리고 단순한염증에의하야 나오는냉ㅅ갓트면 소곰물이라도 조치만은 그러치안코 다른완고한 병균에 원인한것가트면『리조-ㄹ』를 쓰는것이조습니다 냉이만히나와서 따끔거리고 압흐며 거죽까지 몹시가려운때에는『단닝산』을 타서쓰는것입니다.

임신때에는 아무염증이업서도비교적 만히 냉이나오는법인데체질에딸어서는 아주몹시 만히나와서못견되는분이적지아니합니다 그런때에는『유산』을 풀어서쓰면 아주만혼효과를봄니다

약울타서쓰는 분량은『소곰』『리조-ㄹ』는『단닝산』『유산』의 배가지는 다가티 대략백분지일을물에 풀어쓰면조습니다

죽 보통세수대야에 바질쯤물을 붓고 약을두수까락쯤부어서 풀면됩니다

아무약도 타지안코 그냥물만을 쓰는것은 조치못합니다

뒷물만하면 무슨냉병이든지 낫는다고 생각하면 아니됩니다. 즉 국부에만 병이 한정되야잇지안코 전신적병, 례컨대 폐결핵, 당뇨병, 신장병 란소긔능이상등이 잇는때에도 역시 냉병이 생기는것임으로 그러한때에는 국부료법만 할것이아니라 일반적 전신료법을 해야만 효과를 보게됩니다

영양가치가만흔 음식을먹고 적당한 운동을하며 밤에 안면을하도록할지며 술 담배가튼것은 일절 금할것입니다.

란소의 작용이 불완전한때에는 란소제재를 먹든지 주사를 밧든지 해야만 됩니다.

이런것들 보하는약도 역시최근에 이르러 아주무수히 만히 생겨서 엇더한것이 제일 조흘런지 선택함에 곤난하지만은사실인즉 약의일홈만 달으고 효과는별로 차이가업는것이 만흠으로 결국엇더한약이든지 오래써보는것이 제일상책입니다 (完)

수집든 처녀도……입을연다

"저는 당신께 시집가겟소"

남자가 말안드러? 『벌금!』 명랑한 서양의『閏年』풍습

금년은 사년만에 한번식 도라오는 윤년(閏年)입니다 구미각국에서 이해만은 녀자쪽에서 먼저 남자에게 버저시 구혼을 할수잇는해로 되어잇습니다 여니때 녀자들과 연분이업서서 끼룩끼룩하든 총각들도 『혹시! 금년에는』하고 잔뜩 별르는것은 물론 『저런 이하고 한평생사라 봣스면!』 하고 리상적남자를 발견해노코도 참아 입이떠러지지를안허말못하는 수줍은녀성도 이해만은(죽을편마음은) 마음덕노코『나는 당신께시집가고 십허요』 할수잇습니다. 죽 이런말을 수줍녀가 뻔뻔스럽게한대도 숭이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로처녀들이 사년만에 한번식 도라오는 윤년을 얼마나고대할것입니까?

그건그러타 하고, 이명랑한『립이어·푸로포-샐』(윤년에구혼하는것을 서양사람들이 이러케부릅니다)의 기원을 차저보기로합시다.

전해오는말 인즉슨── 이습관은 십삼세긔중엽부터 발생된것인데 서력기원일천이백팔십팔년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음과가튼 법률이 제정되엇섯다합니다 『윤년에는 국내의 미혼처녀가 그의지위와신분의 놉고나즌것을물론하고 자기가조와하는남자에게 구혼을할수잇다 만약에구혼을바든남자로서 특별한 연고업시 이구혼에 거절을하는때에는 금일『파운드』를 구혼한녀성에 지불할일』 이와가티 남자에게는 매우 딱한 법령이엇습니다 그러나 어느시대를 물론하고 『법』이란 잘운용하기에 달년것이니까 남자편으로 보아서는 큰 질긘질한 경우도잇슬것이요 따끔한 경우도잇섯슬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법률이생긴뒤 몃해후에는 불란서에서도 그와가튼 법률이 제정되엇고 그후에멧백년나려와 십오세기에드러서는 그와가튼 법률이책에까지올라『제노아』『플로렌스』에서도 발표되엇습니다

그런데 이런풍습이 법률로변하기까지된 원인을캐어본다면 아마『미혼자구제』(未婚者救濟)와 인구증식책(人口增殖策)에서 나와진것입니다

엇재서 그러케보게되느냐하면 서력일천구십륙년 『로-마』법왕『울반』이세의손으로 이러나게된 소위『성지팔레스티나회복』을 위한 십자군(十字軍)은 이백년이란긴세월을 전쟁만하기때문에 전구라파의 수만흔 장정들이 펴엇서젓습니다 그럼케되니 여러나라는다가치 남자가주려드러 녀자천지가되엇슬것은 뻔한일입니다 그러고보니 거기에따라 녀자편에서는 여간해서 결혼해볼도리가 업섯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미혼부인의구제, 인구감소되는것을 방지하는 말하자면 일석이조의명안인이 『립이어, 푸로포-샐』의 법률을 제정하게되엇것입니다.

그러치만 나라가다르면 인정풍속이다르다고 이가치스혼윤년을 독일에서는 액년으로여겨 내려옵니다 즉 독일에서는 『윤년에난아이는 장수를못하고 그의어머니에게도 조치안타』팔인죽은 윤년에는 악마가들끌른해요, 더구나 이월이십구일은 제일 납분날이라고하야 퍽끄려한답니다.

돌이된귀신 (二)

崔秉和

한편 젊은귀신놈들은 동무한사람이 목숨보다도 더귀한 붉은 모자를 사람에게 빼앗겨서 귀신두목이 몹시성을내고 잃어버린놈을 벌을주엇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갑흘작정으로 동무들을 모조리 모아노흔 뒤에 아리다와 약속한 넓은마당터로 호기잇게 몰려갓습니다 넓은마당터에는 동리사람들이숨을죽이고 자정때가 되기를 기다렷습니다.

어느듯 동근달이 머리우에떠올랏슬때쯤 아리다는 그붉은모자를 나무가지에 거럿습니다.

『야아! 군호다。붉은모자가 걸렷다!』

『얼른 젊은귀신놈 붓잡어라!』하고 동리사람들은 이러케 부르지즈면서 일제히 손에닥치는대로 붓잡엇습니다

『잇긴 무어이잇서。자네는 귀신을 붓잡엇나』하고 한사람의 사나히가 휼사히 잡자리나 잡는것가티 머리위로 함부로 손짓을 하고 잇섯습니다。

그러자 허리굽은 하라버지의 모자를 귀신의모자로 잘못알고 베낏사람도 잇섯습니다。

『이건 눈이머럿나 그건 내모자야! 얼른이리보내게 밤이슬을 마즈면 감기가걸리니깐』

『몰낫습니다. 저는귀신의모자로 만 알엇습니다』하고 사죄를하는 사람도 잇섯습니다.

이러케 되여서 귀신한놈 붓잡지못하고 넓은마당터에서는큰 야단법석이 낫습니다. 그러는동안에 그중의한사람이 『붓잡엇다-붓잡엇다!』하고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붉은모자를사람들에게 보여주엇습니다. 여기 기잡기 시작하엿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그런곳에 잇슬리가잇나。잡자리나 나비가아닌 날세。귀신놈은 키가한자밧게안되는 놈이니깐 좀울버비듯키 허리를 구피지 안흐면 안되는거야』하고 제일먼저 모자를빼슨 사람이 말하면서

『자이것보게。이러케 하란말이야。도삐기지안혓나』하고 그잡는 방법을 아르켜주엇습니다。

그러니간 다른사람들도 그번 올떠서 모다 허리를 구프려서 땅에서 한자남짓한곳을 휘-휘 둥어 훌트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러자 얼마안되어서 여러사람들이 제각기 귀신의 붉은모자를 빼서들엇습니다。 그리고 붉은모자를 빼앗긴 귀신놈은 사람의눈에 띄우게되엿습니다。

이러케해서 동리사람들은 멧백개인지 알수업는 모자를 빼아섯고 모자를 빼아긴 귀신들은 허둥지둥 엇지할줄을 몰르고 울고부르지즈면서 도망할곳을 찻고잇섯습니다。 동리사람들은 그꼴이 자미나고 우스워서 조차다녓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술래잡기를 하는동안에 어느듯 동쪽하날이 훤-하게 밝어왓습니다。 만일이때 귀신들이 모다 도망만하엿스면 목숨만은 살엇겟지만 모자를 빼앗기고 도라가면 또 두목에게 엄한 벌을바들것을 두려워 생각하엿스므로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자를 도로차즐라고애를쓰고잇섯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모자를 빼앗기지안흔 다른귀신놈들도 동무를 내버리고 도망가기가 안되엇스므로 이놈들도 엽덥히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모자를 차저줄라고 하엿습니다。

이제는 아츰해가 동쪽하날에 불근소사올낫습니다 그리고 그밝은빗지 울고부르지즈면서 귀신놈의몸둥이를 빗치기 시작하엿습니다。 귀신은 엇더케 하는수업시 한놈두놈차례대로돌로변해버리엿습니다

이러케해서 이동리의사람들은 귀신잡기에 성공(成功)하엿습니다. 이것들의 만흔돌들은 바로 과비에 불리고 마즈며 도깨비개인날에는 그사이를 소와양떼가 한가히 것고잇섯습니다。

그처럼 귀신놈에게 괴로움을 바든 동리사람들은 두번다시 귀신의작란을 보지안코 마음놋코 살수가잇섯습니다 (和蘭童話)

家庭醫學

안구진탕증

問 금년열살된남아인대 두살되든해 가슴에 벼개가 떠러저 경풍을이르켯스나 그시 의사에게치료를 밧지안흔탓인지 지금은반맹인노릇을합니다 눈동자에는 고장이업사오대 눈알이진청치못하고 좌우상하로 돌기때문에 잘보지못하오니 지상으로자세히 가르처주시옵소서

答 안구진탕증(眼球振盪症)갓습니다 벼개가 가슴에떠러진것이 본병의원인이되엿는지 자세히알수업습니다만 사정도잇겟지만 지금것 치료를한번도안한것을보면 아이의 병에 대하야 너머등한이 하시는것 갓습니다 병은 속히 치료할사록잘낫습니다 그런대본병의원인이만흐므로 안과전문의를차저 자진세히 찰을 밧도록해보시요 (李萬福氏談)

잠잘때 어불을 쓰고 자면 입술이 려지기쉽다。

그리고 잘때 몸부림을 하는애는 이불을 거더차기때문에 감기들기쉽다。

또 잘ㅅ자리에 사탕을 물고 자는애는 니가썩는다썩어。

또 한가지 옷 입은채로 그대로 자지말고 버서라。

(글쓴사람 최병원)

主催 京城女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第二回 中國料理講習會

講師는斯界의權威 鄭順媛氏

오는三月十日부터五日間

중국료리가 세계적이고 안인것은 여기에말할필요가업다 치더래도 중국료리가 지리적 관게로 나 우리네식성에 잘맛고 돈이 비교적 적게드는 점으로 보아서라도 우리네가정에서 무관심할수업습니다 나라가크고 력사가오래만흠 료리도 따라서 우리네음식에 비하면 무척발달이 되어잇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평가 놉흔중국료리를 배워일상식에 응용할필요가 업는나라요리보다 확실이 만흘줄압니다 이런점으로보아 작년에 녀자기독청년회에 주최한 중국료리강습회가 얼마나 일반가정에 유익을 끼첫슬것인가는 말하지안흔다도 다 아실것입니다 이번은 제이회 주최측인 녀자긔독청년회관에서 열리게되엇습니다. 제일회때강습을 바다보신분은 아시겟지만 강사되는 정순원(鄭順媛)녀사는 그곳에서부터 중국에서자라 중국료리에 정통하실뿐더러 여러햇동안연구까지하섯스니 본바탕의 고등요리에 대해서는 모르는것이업시 훤하십니다 리론뿐만아니라 실제할팽술에 잇서서 조선에서 『중국료리』에 첫손꼽을이는 이분이라는것이 일반의말입니다 그럼으로 이런조흔기회에 이런조흔선생을마저 가정에 계신여러분은 만히 이회에참가하시기를 바라는바이올시다

時日 三月十日부터十四日까지 (매일오후二時부터 四時까지)

會費 壹圓(材料費는 每日實費를밧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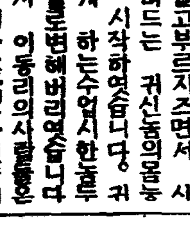
場所 西大門町一丁目三三、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

申請期日 三月九日까지 主催會館으로 申請하시요

申請手續 (정원은 작정이엇스니 場所關係로 期日前에 마감할수도 잇스니 될수잇스면 하로라도 速히 申請함이조습니다)

月波先生 【九】

宋影作 金貴榮畫



또 아이들은 웃엇다 월파선생도웃엇다

그전가트면 야단이 낫을것이지만 지금은 참엇다 돌오허둥처서 떠온화한목소리로

『내가 가르키지 누가 가르켜 나는 참가할줄을 몰르는줄아니? 허…그리고 연극도한다』

『네, 연극도요』

이번에는 결동이가 하도 선긔하다는듯이 말을햇다

『그럼, 그리고 연설도한다』

『아이구 연설두요』

『예구 조와라』아이들은 그야말로 참새가티뛰엇다

『내일부터연습이다 그리고 스므날안에는 우리도 장하게학예회를하자』

『그런데 선생님, 아이들이 적어서요』

『움, 조치, 적어도 잘만하면그만이아니냐』

하면서 월파선생은 또 껄껄대고웃엇다.

아이들은 조와서 이 선생의웃음을바다웃엇다

그러나 창박게 툇마루에안젓는 숙희의눈에는 가느다랏케 눈물방울이 젓다

『애들아, 그럼, 오늘은 그만집으로간다 그리고 오늘밤을 잘쉬고서 내일아츰에는일즉이온다 책, 만가지고온다』

여러아이들은 조와서 례를 허둥지둥하면서 달아난다

월파선생은 아이들의 경례하는허리의 각도(角度)가 멧도가 되는줄도 알아보지도못할만치되여서 그냥 『오냐 잘가거라』만 귀계적으로 외쳣다

집안은 조용해젓다

선생은 열심스럽게 연극의줄거리를 꿈이고안젓다

숙희는 바누질할긔운이 업서서 뒤ㅅ뜰로 살그머니 내려가서 새파란 하늘을처다보고섯다

9

『선생님계십니가?』

쩡쩡한 구장의목소리가낫다

『네, 구장이십니가』

월파선생은 쓰든붓을 내던지고 마루로나왓다

『아이구 김참봉도(농감)오시구 아이구 면장영감도 오셋습니다그려……』

허둥지둥 돌로내려왓다

숙희는 벌써 [illegible] 방석을 깔라 노코 다시 [illegible]

[illegible]

『선생님 [illegible]

지운착, 가라앉엇든목소리에는 감사한것이 더더더 말햇다

『에이구 천만에요 그런데 원로에 어려운출입을 하셧습니다그려 자-들 올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김참봉은 콤테안경에 회색인 직두루매기를 입엇다 회색 긴 도경제회를신고 오동화류단장을 집혓다

매우 사치스러워보히나 얼굴만은 상스러워보힌다

소작인출신으로 중지주로 성공한 그의 지낸경력은 이 얼골과 이 의복이 겸처서 나타내고잇섯다.

더욱히 그가 동척의농감이되고 면협의원이 되든뒤부터는 상당히 이 근처의 유지신사로써 행세를하고지낸다

억제로 점잔케 지여서 말하는 김참봉의말솜씨는 구석구석에서 소작인때의 말틔가 섯겨서 잇섯다

『오늘 선생님 아이들 노는구료 일직갓습니다그려』

『네 좀 일이 잇서서 일직 파햇습니다 자- 누추하지만은 들어오시지요』

세 늙은 유지신사는 선생의 안방으로들어와서 둘너안젓다

구장은 키도 적지만 목소리도 짹짹하게 바라젓다 이십년동안 구장을 계속해서 군수령감에게로부터 표창장까지 바든 늙은이다

다소 한문자ㅅ도알고 새풍속도 젬작하다 먼저 말을냇다

『선생님 오늘 면장께서 내려오신것은 다른일에 아니라! 저어 공립보통학교문제로 해서』

월파선생은 가슴이 선뜻하엿다 그러나 역시 온화한 [illegible] 띄우고

『네 알겟습니다 저번에 과셔회까지조직이되면것 말들어지은 면장은 좀 나릿한목소리로 위엄과친절을지여서 말한다

『네 그럼 말슴입니다 우리, 면내에 이 시중의숙이나 대촌학교가튼 교육긔관이 잇기는하옵지만 그보다도 아조 커는 [illegible]

[illegible]

學藝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四)

洪起文

배경은 배경대로 또現在는現在대로 眞正한 朝鮮史가 들어나지 못 하얏다고 丹齋는 痛歎하야 史의 改造를 提唱하얏스되(朝鮮史第一編第五節參照)첫재로 歷史觀이 틀리고 둘재로 排他自尊의 先入見에 눌려그의

◇…著作도 眞正한 朝鮮史와는 距離가 멀게 되얏다。自古及今 無數한 史家들의 파랑풍(風)을 고치기 爲하야 丹齋는 부르지젓스나 그손으에 들린 武器는 역시似而非的朝鮮史家들이 쓰든 낡은 연장으로 그 自身조차 파랑풍을되푸리하고 말앗다。그러한 中에도 그의武器는 또좀 不完全하니, 그것은 곳 補助科學에 對한 그의 素養이 多少 不足하얏다고 보이는 點이다。어느部門의 科學이라고 다른部門의 科學으로부터 補助를 全然 기다리지 안할수 잇스리만 歷史學은 人類學、言語學、考古學、土俗學、碑銘學等等 좀더만흔補助科學을必要로한다。勿論 그러타고 丹齋더러 그만흔 補助科學을 왜 한께 研究치 못 하얏드냐고 責望하는것은 決코 아니다。그것은 丹齋뿐이 아니라 어떠한 歷史學者에게 잇서서도 無理한 注文에 屬하는일이다。그러나

◇…歷史學者로서 그모든 科學에 通하야 그 結論을 攝取할수 잇도록은 素養을 가저야 할것이 아닌가? 그만한 素養도 업서서는歷史研究의 만흔 支障을 이룰것이 아닌가? 漂泊生活中에 잇는 寒士로서 그는 自己의 말과가티 書籍의 購覽이나 各種史料의 蒐集이나 모도다 如意치못하얏슬것이 事實이다。(朝鮮史第一篇第三節參照)또 海東金石苑과 朝鮮古蹟圖本을 重要하게評價한것이라든지 全高句麗渤海의 舊疆踏査를 宿願으로말한것이라든지로 미루어서 그가 그러한 部門을 輕忽히 보앗다는이보담은 오히려 힘과 겨를이 함께 미치지 못한까닭이리라고 推測된다。(上記書第四節參照)그러나 그야 사사로운哀惜이 아닌가? 哀惜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의 缺陷까지를 掩蔽시키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補助科學에 對한 自己의素養이 缺乏되야 그結論을 攝取치 못하는것도 오히려 無妨하다마는 할부로 아모

◇…領域에나 闖入하야 任意의 獨斷을 나리어서는 실로 困難한일이다。그것은 아모리 好意로解釋하더라도 科學者답지못한 無謀에 지나지 못 한다。

朝鮮史 第二篇 第一章 第二節 朝鮮族의 東來한 題目아래 丹齋는 다음과가티말하얏다。

「人類의發祥地에 對하야 (甲)파미르高原(乙)蒙古沙漠이라兩說이 잇는바 아즉그是非가 決定되지 못하얏스나 우리의古語로써 參考하면 王姓을 해(解)라함은 太陽에서 뜻을取함이요 王號를 불구레(弗矩內)라함은 太陽의光輝에서 뜻을 取함이오 天國을환(桓)國이라함은 光明에서뜻을取함이니 대개 朝鮮族이 最初에 西方파미르高原 或蒙古等地에서光明의本源地를 차자 東方으로나와 不咸山-今白頭山을日月의

◇…出入하는곳 곳光明神의棲宿所로알아 그附近의 土地를朝鮮이라 稱하니 조선도 古語의 光明이란 뜻이니 조선은 後世에 吏讀字로朝鮮이라쓰니라」

人類發祥地에對한 學說도그러케簡單치는안커니와 朝鮮族東來의 經路에 對한 說明에이르러도 甚히아려보인다。이러한 獨斷은避하는것이 조치안 하얏슬까?

또 上記書 第三章 第四節 漢字의輸入과吏讀의 創作이란題目아래 丹齋는다음과가티말하얏다。

「國語가變하야 文字가되고 形字가 變하야 書字가 됨은人類文化史의 通則이니形字인漢字를가저다가 書字인吏讀文을 맨들므로 떼니키아人이 애집트形字를 만아 알파베트를 맨든과 一例로 볼만한 文字史上의一進步라 할것이며 後世의 契丹文 女眞文 文股名이 모다 吏讀文을

◇…模倣한것인즉 人類文化에補益된功德도 적지아니하다……」

文字에對한解說도多少의錯誤를免치못하는것은 勿論이어니와 契丹字等이 吏讀文으로부터 나왓다는것도 아주 錯誤이 업는일이다。이러한 獨斷도 재미적은것이 아닌가? 그러나 言語學上 丹齋의 無謀한 後略을 만히 바든것은 업슬것이다。「나라」(國家)의 名稱은 나루(津渡)에서 始함이니라」(朝鮮史研究艸 吏讀文名詞解釋法參照)「나라는 古語의 라라니」(朝鮮史第二編第一章第二節參照)等等 그例 果然 不知其數다。어떠케 나라가 나루에서 나왓는가? 어째서 나라의 古語가 라라인가? 丹齋는 곡 對하야 도모지 明證을 보이어 주것이업다。音相似로서 類推한 그의獨斷以上 아모것도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歷史學者로서 丹齋의 또한가지 不足을 세지 아니치못하노라 이不幸은 前記두가지의 不幸과도 달라 大半 그의不幸한 一生으로부터 由來된것이나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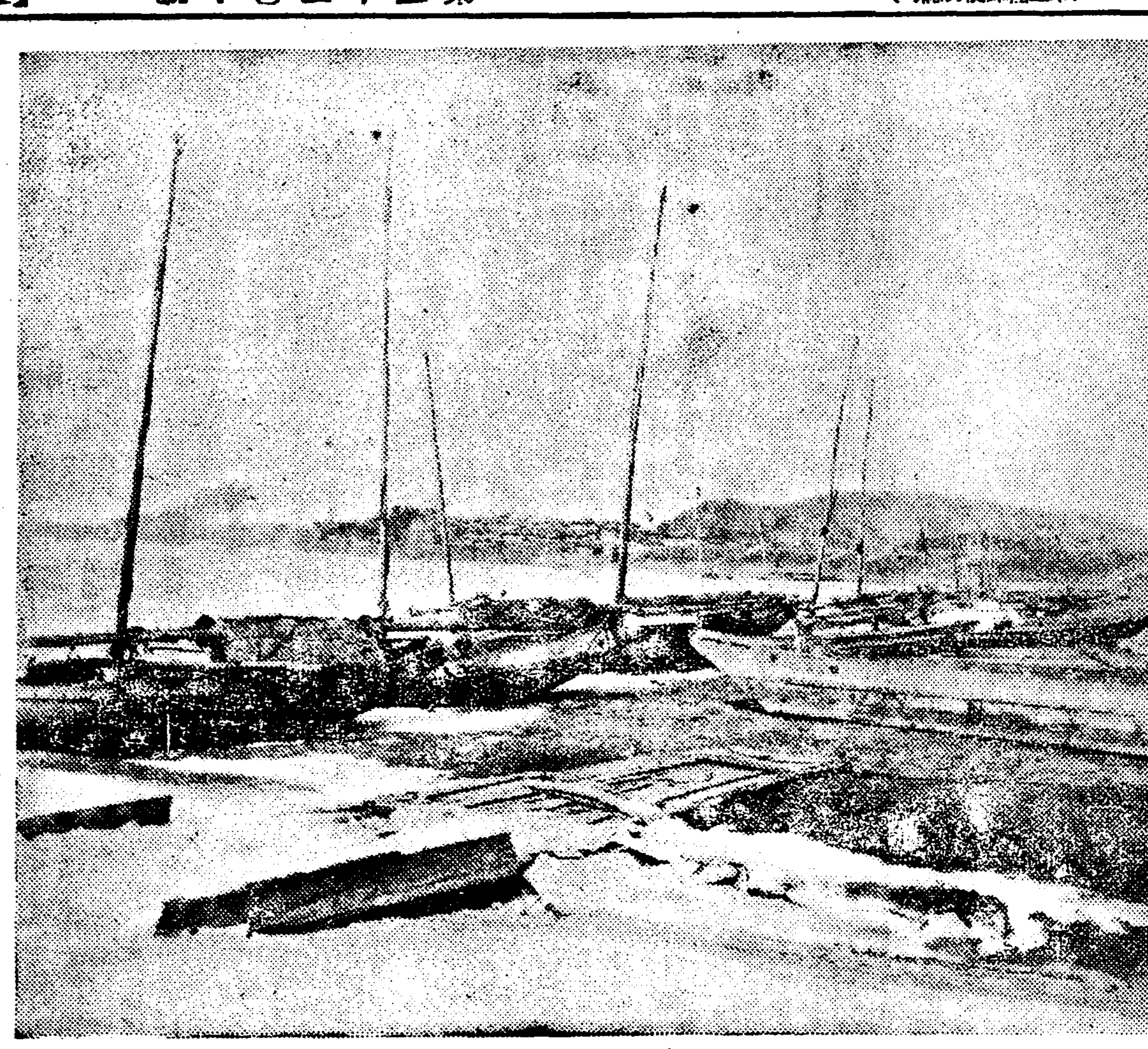
漢詩

春雪—押風 選外佳作之五

桐崗考選

大阪市外 文昌來

艶陽時節雪飄空
着地無聲半舞風
楊柳樓臺銀散漫
杏花籬落玉玲瓏
琴調郢曲絃重理
梓出山陰棹更通
青帝却嫌光景晩
故敎草木競春工



時調畫帖 (其十一)

간밤에 부든바람 江湖에도 부돗던지
滿江船子들이 어이구러 지내연고
山林에 드런지 오러니 消息몰나 하노라
(失名氏)

沙翁劇獨逸公定譯

—여긔도統制가잇다—

【伯林發同盟郵信】一代의文豪『쉑스피어-』의 劇作은 全世界各國語로거의다 飜譯되여잇는데 獨逸語譯으로『슈레-겔·틔-크』譯이 거의獨步로서 兩巨匠이 一七九七年으로부터 一八三四年에이르는 約半世紀間에 繼骨彫琢의譯筆로된만큼 右譯文은 往往이原文을 凌駕한다고까지말해오든것인데 世界大戰以來『한스·로-테』氏의 新譯이 果然獨逸劇界에流行하게 되엿다 『로-테』譯은 아모래도 俗語가넘우만허서 原作의 眞味를傳하지못한다는 非難을 밧고잇섯스나 最近『로메오와 쥬리엣트』가『로-테』譯으로 獨逸劇壇에上演된結果 果然譯으로한 論議의焦點이되엿다『로-테』譯으로 沙翁劇을上演하는것은 復興獨逸의劇壇에對한 冒瀆的行爲라고하는것이 反對派의論點이고 高踏的인『슈레-겔·틔-크』譯보다『로-테』譯이더 大衆的이 아니냐하는것이『로-테』譯支持派의 論點이다。그래서 이理論鬪爭에 裁斷을 네리려고나선사람이 啓蒙宣傳相 요제프·겟벨스』氏 劇壇文의大家들에게 質問書를 通達하고『슈레-겔·틔-크』譯과『로-테』譯과의 優劣에對한 直截한 答申을 要求햇는데이 答申이 모히는대로『겟벨스』宣傳相은『나치스』一流의統制辭令을 내여 獨逸語의沙翁譯을『公定』하는省令을 公布할 方針이라고한다。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 ③

韓曉

「또한가지 重要한 感傷主義란 現在에잇서 아직까지도 創作方法問題에對한 空虛한 主張과 絶叫가 公然히 橫行하고잇다는現象이다 大抵우리들은얼마동안을『創作方法!』『創作方法!』하고 念佛하듯이 反覆暗誦해왓는가?」(傍點-曉) 이것은 前番朝鮮日報에실닌 白鐵氏의『人間探究와苦悶의精神』이라는

◇題下의論文의 한句節이다 이얼마나 正當한論理的 解明을拒否하는 迷妄論의 强調인가? 오늘날創作方法問題에關한論議를 『空虛한主張과絶叫』라고罵倒하는者는 確實히 빠-크려-메칸드等의 形而上學的見解에서脫되지못한 愚者만이 따뿔할 迷信의 誇大忘態에걸닌者가 아니될것이다 더욱히 過去에잇서서의 一切의 創作方法論에 關한 論理가오로지 價從의『念佛』과도가티 들녀젓을건대 엇지文學藝術의 우에形而上學을 交流시키려는 妄動에 우리白鐵氏가 정말解脫될수잇슬것인가?

創作方法의 論議!그것은 社會가 存在하고 人間이 存在하고 藝術이 創造 되는限에 잇서서 어느때나 그의 歷史的 過程에 잇서서의 그自身의 發展과 함께 論理되여야할것이며 또 論理되지 안흘수업는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는데잇어서만 藝術은 보다더完全에로 發展되며客觀的眞理에 到達할수잇는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의論議를 拒否하는 白鐵氏의 荒唐無稽한 妄言은

◇歷史的 逆行의『햄릿』을잡은 線從工의 애주진 悲鳴 以外의 아무것도아닐것이다

×

이러한 觀念論的迷妄속에서現實에對한 藝術的 認識의 特殊性을 無視하는一派와 그리고이 一派보다는 좀進步的 傾向을把持하고잇스면서도 亦是藝術的認識의 特殊性을 沒却하는 側面에잇서서 前者와 同一한 迷妄의世界에서 低迴하는機械的唯物論者들을 우리는 發見할수가잇는것이다。그들은 客觀的 眞理의 正當한 藝術的反映의 發展의 歷史를 그의 時代的制約性及 階級的關係-그의發生、發展、沒落의過程의解明에서 規定하지못하고 푸리-체의藝術社會學的見地에 盲從되여 全혀 無意識的으로 藝術의特殊性을 無視하는 過誤를 犯行하고잇는것이다

그들에게잇서서는 特定의藝術的表現의 本質은 特定의 階級의利害關係의 反映으로 밧게理解되지안는것이다

말하자면 푸리-체가 諸形美術의 社會的機能을 定義하야말한바、다음의語句를 藝術의本質의全部로 斷定하고잇는것이다「形象의 媒介에依하야 感情과 想像과에 影響하고 또 이것을 通하야

◇個人의 思想에도 影響하면서 諸形美術은 社會的集團感은 그어떤部分 即社會가 階級的으로 分離되여잇다고하면 그社會階級의 興味에投與되게 그들의感情、想像、思想을 組織하고 統一할 方面을 示하는것이다」(昇曙夢譯푸리체『藝術社會學』一四頁)

그리하야 그들의 이러한 過誤는『藝術은 階級의 自己擁護、階級鬪爭及 階級的 支配의 手段의 하나로서 顯現되여잇다』(黒田辰男譯 푸리-체『藝術社會學의諸問題』一二二頁)고하는 結論에 到達하게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들에게 잇서서 그것은 藝術的 機能의 全部와도가티 생각되여잇는것이다。

그러나 藝術은 그러한 階級的關係에 奉仕되여 잇스면서도 原則的으로는 客觀的 世界의 眞實을 反映하는 特殊性을 가지고잇는것이다 그것은 現實의 眞實을 眞實히 描寫함으로써 그의 階級的 利害에 奉仕하는 特殊한 表象이며 決코 그에게 最初부터 賦課되여잇는 어떠한

◇政論的命題(階級的 利害를 强調하는 圖式的 處方箋)를 表現하기 爲한 宣傳道具(手段)는 아닌것이다。

藝術은 特定의社會、歷史的段階에 잇서서의 다른 一切의 이데오로기-的 諸形態와의 相互影響을 가지고 一切의 下部構造에 對하야 影響을 波及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經濟的 基礎의 變革에 依하야 다른모-든 上部構造와 한가지로 徐徐히 或은 急速히 變革되는것이다 그러나「經濟的 生産諸條件에 잇서서의 變革과 人間이 이衝突을 意識하게되여 그것을 鬪決하려고하는 法律的、政治的、宗敎的、藝術的乃至哲學的、一言하면 觀念上의 諸形態와는 恒時이것을 區別하지안흐면 아니된다」(맑스『經濟學批判』序文) 푸리-체의 追從者들은 이러한基本的見解에 對하야서는 오히려 默殺과 無理解를가지고 무시무시하게 그것을 歪曲하고잇는것이다 藝術을 一定의 經濟的組織과社會階級에 直線的으로 對應시키는것은 至極히 不當한 機械的偏見이다 藝術은 다른이데올로기-的諸形態와의 相互影響을가지고 下部構造에 對하야

◇影響되는것이며 또 그影響을 밧는바 下部構造는 다른上部構造의 影響의 統一的表象을가지고 藝術의 創造에對한 特殊的對應을 保持하고 잇는것이다。

이러한 對應의속에서 恒時發展되는바 事情과個性의 典型을 統一하고 그것으로 形象化하는데잇서서의 藝術的認識은 數多다른 一切의 이데올로기-的諸形態의 그것과는 相容되지안는 特殊性을 가지고잇지 안흐면아니되는것이다。

漢詩募集

題春雲—押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兒童의世界一週◇

巴里의어떤小學校에서는 校庭에 寫眞과가튼設備를하고 世界一周의 概念을 生徒들에게 가르치고잇다。卽、地形과 山河都市를 그린巨大한 地球儀의 周圍에 螺線形의 步道를 設備한것이 그것인데 그압헤선 敎師의 說明을 드르면서 兒童들이따라가면 어느地點에서 다른 어느地點에의 情勢를 目前에서보는듯하게되면서 學習해가게되엿다고한다。이大地球儀는 勿論移轉할수가잇서서 所要의地點에서 出發식혀서 一定한코-스를 取할수가잇고따라서 机上에서적은 地球儀를가지고 學習하는것보다는 훨신더有效하다고한다。

隨筆 銀杏나무 (上)

辛夕汀

작은 因緣 세서길남어되는銀杏나무를 좁고 單調한庭園에 옴겨온것은 내가 東萊梵魚寺를 다녀오든直後이니 아마十月上旬이엇다고 記憶한다 梵魚寺를들어가는어구 한便에는 작은기와집이잇고(이것도절에딸린 집일것이다) 그집뜰에는 바로처마를자칫비겨서 거의 연아무길 남어되는 銀杏나무가 서잇섯다。丹楓이 한창고울때이엇지만 아직도 銀杏나무는 푸른빗이 가시지안코동실동실 노릿노릿한 넙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잇섯다。

이것은 나의 感懷이지는 몰라도 單調하고 簡潔하건만 그 넙새는 보면 볼수록 이상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부슬업시 떠돌고 남모를 喜悅을 限업시 자어내는것이 그 님새다 同行들은 그저 大刹을 보고 갓득이나 큰 建築과 大佛像을 보는데서 驚異와 興味를 자어냇슬는지 몰라도 나는 오즉 이 銀杏나무를 바래보는데서 무엇보다도 큰收穫을 어든것이 만다。寂寂한 山中에 와서 單調한 銀杏입의 雅淡하고 高潔한 얼굴을 바래보는것은 저 梵閣에서의 그것이안이엇다。어쩌지 내마음을 짝붓돕고 놋치안는것 하여곰 高潔한그입새가 바람에 이 銀杏입새엿스며、또한 나로 흔들니며 속은거리는것은 부처님의 굿게다믄 입에서 들을수잇는말에 지지안엇다고생각한다 無常하다면 無常하고 奧妙하다면

◇奧妙한것이銀杏입새이엇다 또 생각나는것은 내가 갓스물이넘든해 가을에 長城白羊寺를거처 雲門庵이라는 寺刹을 찻어간일이잇다。雲門庵에서나려와 物外、藥師를 지내여、藥泉庵이라는 바위안에지은 작은庵子를 나려오면 藥泉窟이잇고 그압헤는 커다란銀杏나무가서잇다。눗인가을이라 丹楓은 거의떠러저 山은뷔고 銀杏나무도 노-라입새가 한창휘날리고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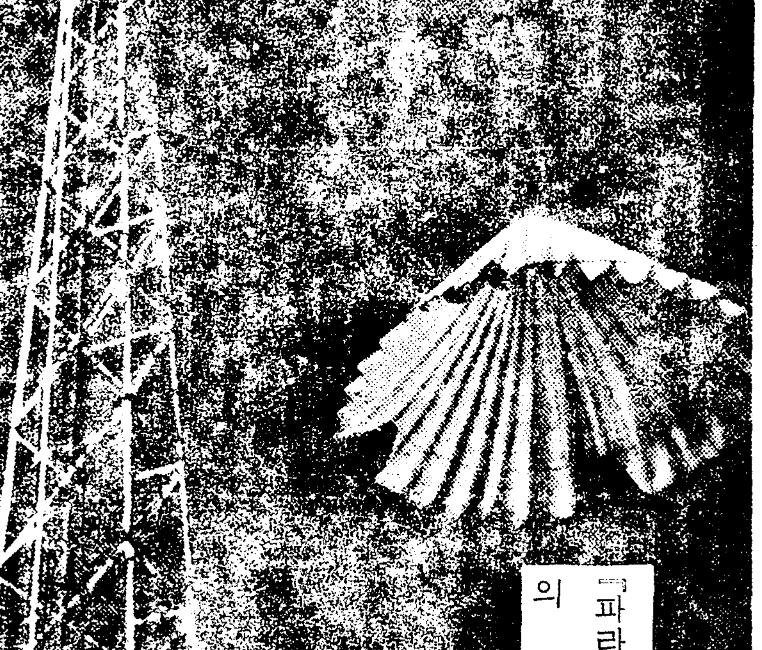
◇人生의對한 欲望이 불타듯일어나든 그때의 나는 銀杏입새처럼 날려서 푸른 가을하늘을 悠悠히巡禮하고도 십헛스며 一便 그나히에흔히잇는 懷疑와憂鬱은 千길땅밋헤로 떨어지는듯 딱-까라저서 떨어지는銀杏입이 도한어떠케 無常하게 뵈이는지몰시서글으기도하엿다。내가 銀杏나무로하여곰 속걸이 人生의 欲望을 느끼고 또 無常을 느끼기비롯한지가 바로그때이엇다。그러므로 그뒤銀杏나무는 마치 禪客들의 話頭처럼 나에게

◇人生에對한 深邃한 黑索을 提示하는것이 되엿다。이리하야 나와 銀杏나무는 여러해두고 사귀여온親한벗이라할까? 내生活에서는 다시떠날수업는 因緣을맷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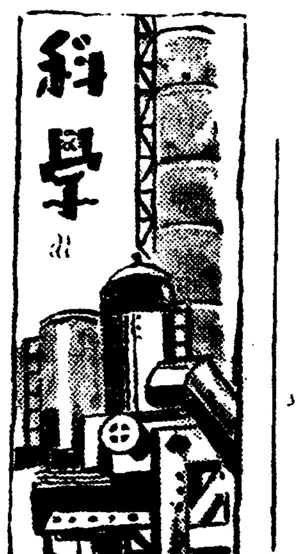
〃銀杏나무의 歷史〃

저 銀杏나무는 우리마을에서 北便으로十里남짓떨어저잇는 작은海村-琴山里라는 마을에서 더온것이다。저銀杏나무의 녯主人한테서는 承諾을어든지오래되건만 主人의마누라되는婦人은좀체허락을하지안엇다。압뒤에두나무를 심어노코 二十餘年이나길러오든것을 그러케줄수가 업다는 主張이엇다。더구나 맛바래기로심은것을 하나만캐바리면남은한나무도 銀杏이안이열으니까 더할수업다는것이 反對의 큰理由이엇다。그러나 나는 가저올 욕심으로 작은 銀杏나무를 代로하나 그자리에심기로하고 明春에는 果樹를멫나무사보내기로하야 겨우婦人의 承諾을어더서 後園의銀杏나무를 어더왓는것이다。내가 主人이엇던들 나는

◇斷然코 내주지안엇슬것이다。果樹園을꾸며준다고한들二十餘年길이든 銀杏나무를 그러케내줄理가잇나? 하고 생각할때 銀杏나무에게는 좀殘忍한主人이엇슬는지몰으나 나에게는 퍽 고마운主人이엇다。떠는 銀杏나무도 殘忍한主人을 離別하고 나가든主人을 다시만난것을 幸福으로는 생각하지안엇슬는지몰으나 決코不幸하게는생각하지 안엇슬것이다。



『파라슈-트』의 初步



危機의自然科學

그超克의길은무엇인가?

❶ 金成圭

(一)

「不安의思想」이니「文化의危機」이니 하고喧傳하는 오늘날 그의『純粹性』과『超階級性』을誇示하는 自然科學——特히 그의集中的表現이라고도 할수잇는 理論物理學의領域에는 거의

◇驚天動地라고 할만한 大變革이 이러나고잇다。그것은 一朝一夕에 이러난것은 안일것이다。自然이가진바 無限히豊富한 內容이 時時刻刻으로 發展進步되여가는 人類의 智識에 더正確하게 反映되고 把握되여가는 過程에잇서서 必然的으로 到來할것이 到來한것에 不過하다。理論成果의 量的發展이 質的變動을 일으킨것이다。

그러면 그變革이라는것은 무엇을 指示하야 하는말인가? 曰、物質의概念이 消滅하얏다한다。曰 舊來의空間、時間과運動、質量等等의 基本的槪念에 根本的改變이 必要하다는것이다。또曰、從來 科學이 信憑하야 마지안코 그의理論的基礎로써 認定하고잇던 因果律其他의法則이 破棄되엿다한다

이러한 驚愕할만한 科學의基礎槪念의 震動은 드듸어 自然科學者들로하야금 自然科學의『危機』를 불으짓게한것이다。그것은 그變革的意義에잇서맛치『커펠닉쓰』(十六世紀)『갈리레오』(十七世紀)가 地動說을 最初에主張할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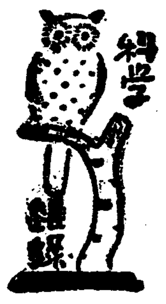
◇混亂과疑惑 激情과反感感激과讚美의 矛盾된 交錯狀態에 恰似하다고 하겟다。그것은 狹小한 科學界의象牙塔을 넘어서 一般社會에 一大센세이슌을 일으키고잇다。甲이란 物理學者는 興奮된口調로『物質의消滅』과『因果律의破綻』으로말미아마 唯物論이『崩壞』하얏다고 嚴斷하게宣言한다。乙이란哲學者는 會心의 微笑를띄우며 我等이 可히信憑할만한것은 오즉 純粹自我의思惟뿐이라고 웨친다。丙이란宗敎家는 科學의不可信을 소리노피喧傳하고 萬能의神에 歸依를 올리자고 强調한다。果然 科學은『明讓』하고 吾人은 再次 中世紀의 暗黑時代- 萬能의神의 絶對的支配下로 歸還하고잇는가? 科學文明은 白日夢과가티 살아지고 人類는智識의果實을 맛보기前의『아담』과『이브』의『에덴』의花園으로 도라갈것인가?『危機』는자못 深刻하다。科學의

◇基礎는 動搖와不安中에 싸이여 歸結할바를 몰으고잇다。『危機』를틈타서 混亂과混沌을意識的、無意識的으로 齎來하는徒輩가 不知其數이다。公然한 또는隱然한 觀念論과不可知論 倡主義와 神秘主義가 時節을맛난듯이 暗躍을開始하고잇다。輩固한 哲學的基礎를 缺如한 大多數의 無意識的=自然發生的唯物論者인 自然科學者들은 길일흔羊과도가티 갈팡질팡 左顧右眄하며 或은 宗敎에、歸依하며 或은 神秘主義의 毒牙에걸리어 魂을빼앗기고잇다。新칸트主義와『마흐』主義가 주름살잡힌 얼굴에 濃厚한 化粧을하고 明確한 世界觀을 갓지못한 自然科學者들에게 秋波를보내며『니-체』『베륵송』『켈케고-르』『쉐스톨』等이 流行의非合理主義의 스카-트를 휘날리고 不安의狂想曲에 발을마추어『라린티라』의춤을추며 科學探求의길가는 大衆을 誘惑하야 頹廢로 引導한다

이러한 自然科學의危機는 單純한科學發展의 論理的過程에서 偶然히 發生한것일가? 또는

◇市民社會의『알게마이네·크리-제』의 自然科學의部門에잇서서의 反映일것인가! 論理的必然性은 歷史的必然性과 辨證法的統一을 일으우고잇는것이다。市民社會의 歷史的終末은 必然的으로 그의學的代表者들로하여금 科學의破産을 告白치아니치 못하게한것이다。그들은 絶望의 歎息과呻吟끗헤『最高絶對 唯一無二』의 神의啓示만을 渴望하고잇는 狀態이다。

그러면 科學은 그의擔當한過去를 등지고 市民社會와 함께 永遠히 老衰의길을 밟을運命에



家禽肝臟病에서 癌의新療法發見

【마리쯔부르크(나탈州)發同盟郵信】南亞弗利加『마리쯔부르크』의 南阿政府 科學研究所에서는 最近 家禽의 肝臟病『류-카에미아』의 治療法의 研究로서 偶然히 人間의 癌療法에 새로운『힌트』를 發見하엿다。

『류-카에미아』라고 하는것은 南阿의『오텔스보-르트』의 研究所以外、研究所及 世界各國의 學者들의 研究對象이되여잇는 家禽의 難症으로서一旦鷄가 이病에걸리면 人間의癌과 同樣으로 惡性의 腫이 되여서죽는것이다『나탈』州에 流行하고잇는『류-카에미아』에는 三種類가 잇는데 그중二種類에對해서는 鷄으로부터 鷄에移殖하는데 벌서成功햇고 다음은 다만二種뿐인데 여기에成功하면 癌療法의難關이 突破된다。여기에 對해서 그研究所에서는、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現代文明과 電燈의發達 (六)

東京技術部 兪完昌

如斯한眩惑이 웨眼力에有害하냐하면 肉眼의 明暗調節狀態가 急激히破壞되여서 網膜의 感光度가 一時激減함으로 視神經이 刺戟을바더서 有害한것이니 保眼上 우리는 此點에 注意하야 照明器具의 嚴選 住宅照明의注意 局部照明(스탠드使用)의使用等으로 明暗의 差異를 調節하기에 留意할必要가잇슬것이다

◇一結言

『科學의朝鮮』이것은 筆者의잇지못하는꿈이다 언제나 우리도 科學의 烽火를들고 世界에斑伍하여볼가 이것은 오즉 어리석은筆者의 無價値한꿈일가 拙稿를 消覺하여주신 讀者諸賢이여

一次하여보라 今日까지에 電球의全生涯도 人間의全生涯와 彷彿한點이잇지아니한가 決코平然無難한 生涯가아니엿다 모든科學者의努力 苦心의結晶이 아닌가『에듸손』翁은 말하엿다『天才라는 一%의靈感이요 九十九%의血汗』이라고 이것은 老發明家가 우리人間에게 던저준千載의 格言이라고 밋는다 一定한 目標를두고 不撓不屈히 努力만하면 반다시 成功하리라는것을翁自身이 立證하엿다 우리朝鮮科學界는웨 遲遲牛步로 뒤떠러지고잇는가 그主的原因은 우리는 第一로 努力치안는까닭이요 第二로는 科學에넘우도 無關心한까닭이라고 斷言하겟다 瑞西를보라 同國은 山國임에도 不拘하고 不幸히 鐵도업고 石炭도업는 科學的環境으로는 相干不運한 國家가 아니다 그러나 그國民은 努力奮鬪晝夜精密機械의 特殊한 才質을 어더가지고 科學的國家로서의 重要한 地位를 今日獲得하지아니하엿는가

저大思想家『맑스』가 思想界에 던진 波紋은 實로 偉且大하엿다 그러나 저大發明家『에듸손』翁이 우리人類에게 남긴 貢獻은 前者에 比하야 決코떠러지지아니할것을 나는確信한다 女類思想家『로-사룩셈부르그』와女類科學者『큐리-』는과는 때를 가치한好對照일것이良 『큐리-』夫人의 放射能元素의發見 即『라지움』의 發見한 功績은 얼마나 偉大한가 乃至 現代文化人에게는 얼마나 큰 功勞者인가 筆者는確言한다 世界的意義를가지고 科學研究에 前進함도 우리文明人으로서의 重要한 任務의 하나이라고

筆者는 一個月前에 東京中央氣象臺에서 나는 意外에 朝鮮에서 發明된『日時計』(第四圖)와『測雨器』(第五圖)를 보왓다 筆者는 놀나우리만큼 瞬間的興奮을 늣겻다 이두器械는 그原理에잇서서 얼마나 精巧한가를 나는 驚歎하엿다 朝鮮에서 三百年間 測定된 降雨記錄도 잇다고 讀者은 말하엿다 우리祖先은 最近까지 如

此한 自然科學에 對한 透徹한 精神을 가지고 잇섯는것이엿다 오직 우리는 努力에不足한 우리인을 아러야 되겟다. 筆者는 此稿에 저偉大한 細菌學者『파스톨』의 奮鬪努力記를 紹介하려하엿다 그러나 筆者에게許容된 紙面數는 限度가 잇서 結過되고마럿음으로 이만擱筆하는바이다

【寫眞은 東京中央氣象臺에筆者가 撮影한 日時計와測雨器】

—完—

▼市內職業婦人諸賢께뭇습니다 現在京城市內에 職業婦人協會라는會가잇다는말을들엇는대 그會事務所가 어데잇는지 未安하오나 社交室로서 發表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孔德里一一 金命順

▲滿州에서 印刷所營業部에 多年勤務햇스며 또 農場에도잇슨 經驗이 잇다는분께。能力과 誠實을 表現할만한 內容의 來歷談과 最低限의 給料와 그 理想을 알려줄수잇스면 機會잇는대로 살수도잇슴주하오。咸北鏡城西門外 西光堂

▲그리운벗?金相福君아 君은 五年前玄海灘을건는후 이제여데 잇는고? 알고자한다 牙山郡屯浦의 一隅벗을그리는 鄭白龍

▲本人이 韓仁澤著『旋風時代』를 求하는바 新本인 春園의『그 女子의一生』과 交換하실이는 左記住所로 通知하여 주시요。江原道通川郡歙谷面濃洞里 盧載國

▲專業이나副業으로 養兎를希望하시는분에게드립니다 生後滿一年된안고라兎(純粹種)가 十餘頭잇서온대 形便에依하야分讓코저합니다 有意하신분은 期日을 알리겟사오며 養兎飼育上必要한冊子까지도드리겟슴니다 湖南線三鄕驛前 李奎鎬

▲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誌『學燈』第十九號를 求합니다。보내여주시는 분께 感謝하겟스며 圖書 第二十號나 第二十一號와 新年號(第二十二號)나 또는代金으로 元價를 希望하시는대로 곳 送呈하겟나이다。大德郡鎭岑面南仙里 鄭相拱

▲生은 三年制農業學校出身者이오나 京城附近의 農園等에就業하며 夜學으로 專門程度敎育을 엇고자하나이다。給料는關치 안하며 勿論衣食住도 하겟나이다。有志諸氏여 斡旋하여주시기를 要望하나이다 (楊平 求學者)

▲저는 [illegible] 就職하기가大端히 어렵습니다 工場이나商店方面으로 求職하려하오니 아모조록推薦하야주십시요 小學을마치고 곳雜貨商에從事하다가 昨年十一月에 事情에依하야 廢業하기에이르렀슴니다 全혀生活困難한사람은아니올시다 나히는二十三歲 一讀者

▲京城市外孔德里 近處에서 貝殼等類를만든는데가잇다하옵는데 그工場名稱과番地를 알리키어주옵소서 孔德里一讀者

▲少年漫畫그리시는 리병선、金湘旭、두분의住所를 알고십습니다 누구시던지 少年漫畫趣味잇는것을 그려보내주시면 薄謝를進呈하겟습니다 市內積善洞一四五 秋銀波

▲小生의 藏書中 約百年前古本인듯한 對譯西廂記下卷 一卷이잇는데 譯語가 頗히絶妙하고 白紙版寫本이외다 上卷까지잇는분이업슬가? 그리고 左記書籍을 購讀하고십흔이 一報하야주십시요 百子全書 圖入上海掃葉山房版 英文草堂采國版 小生이 讓渡할 書籍은 明義錄 銅版 御定陸奏約 銅版全 同上 決訟類聚全 李朝(年代不明) 太郎樋町五九 白南壽

新刊紹介

▲李光洙▲金東仁 小說集 京城府慶雲洞九六 朝鮮書店發行 替替京城二一三八番 定價五十錢 販賣所 京城府慶雲洞 大衆書店 替替京城四二一七四番

▲聖異次頓의最後 金泰洽著 京城府慶雲洞九六 大衆書店發行 替替京城四二一七四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第三十五號 新京朝日通り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發行 替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호-무라인 三月號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玉置合名會社發行 振替東京七二二番 定價五錢

黃昏 【27】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예감(豫感) (三)

현옥은 물론 아직 경재와려순의 사이를 의심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못하엿섯다。그러나 경일어머니가 비위를 마추느라 혜 무심코 한말과 또 아버지가 취중에 한말을 듯고 별안간 생각이나서 경재와 말해든것이다。

그러니만치 서경랑중가 침루랐든가 하는데에까지 경책이 갓지안핫든것도 사실이다。

따만 평생 말이 별로업는 경재가 이날은 어린애가티 말을 바더주는것이 한편 재미로워서 현옥은 의외의곳까지 말을 끄러갓든것이다。

허나 경재는 말을 추고맛고나니 무엇지모르게 불쾌한마음이 떠쳐젓다。말업는사람이 공연히 허튼말을 만히하고난뒤에 이러나는 후회가 불쾌감을 크게해주엇든것이다。

게모라든지 현옥의 아버지가 자기들의말을 후문한다는것도 맛당치못한일이엇지만 려순을 멸시하는 현옥의태도가 지금와서는 무엇보다 불쾌하엿다。

현옥은 그를 자기와는 비교도 아되는 사람가티 얻수히 녀이고잇다。일개의녀사무원이라고 비웃고잇다。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려순은 학식으로도 현옥이보다 못하지안타。몸은 더건강하고 성격도 훨신 견실한편이다。그리고 얼굴은 말할것도업시 더 입부고 행실도 물론 더점잔하다。

그러면 무엇때문에?——이러케 생각할때에 경재는 세속인간의 비루한생각을 미워하는마음이 불큰 솟앗다——

(여북 못난사람이여야 돈으로 남을 이기랴겟느냐!)

이러케 속으로 그는 부르지젓다。

그리며 또 언제든지 약한사람을 위하리라는 그의량심도 움지겻다。그리하야 그는 가장 올흔생각을 가지는때의 경재로 돌아갓다。말문이 무거워젓다。

아츰에 호련진기분은 외종일 계여지지안핫다。

현옥의 조롬에 못이여서 오래간만에 동물원에갓다가 표백화점에들러서 저녁을먹고 활동사진구경을 간때까지도 기분은 맑아지지안핫다。

퇴속 화면에 비치는사진은 고를 재미잇게하여주엇다。차라리 불 운명의 활동사진이란 모다 그러것이지만 이때에는 더비위에 맛지안핫다。

그러나 현옥은 흥에겨워 벳범 한수를치고 또 그에게도 가곰 동의를 구하군한다。

사정은 대강이러한것이엇다。

——독일어면장교가 어떤미인을 사랑하게되엇는데 그녀자는 공교히 적국 로서아의 밀정이엇다。그래서 마츰내 그녀자의 정체가 독일헌병에게 알여지게되엇소나 녀자는 그녀자의 아우는 사살되고말앗다。녀자는 곡옥에 돌아가서 밀정을 그만두엇다。그러하든 독일장교라는말과 또 그의아우를죽인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든 독일장교라는말과 또 그곳을 복수할려 따시 밀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동지에게 듯게된다。어떤것은 그녀자를 따서 리용하라는 로서아의 수단에서나온 거짓말이엇소나 녀자는 사실로 알고 다서 랑정이된다。그때 독일장교는 로서아장교로 변복하고 로서아로 들어온다。

어느연회석에서 두남녀가 만나게된다。그때 녀자는 제아우를 죽인사람이 그장교가 아닌것을 알게되며 다시 그에게 사랑을 늣기게된다。허나 독일장교의신변은 각각으로 위험하게되어간다。그래서 그녀자는 군용자동차로 그를 도망식힌다。남자는 국경을넘고 녀자는 절벽에서떠러져 죽는다——

현옥은 사진가운데의남녀가 자동차에 픽붓허안저서 도망을칠때에 경재의것헤 픽붓허안지며

『아이 위험해……』

하고 맛수넘세가 코를찌르도록 얼굴을 갓가히하엿다。허나 경재는 그저 묵묵히 안저잇슬뿐이다。

현옥은 도중하는자 동차가 거치장거를 돌고나가는때마다 가벼게 경재의무릅을 치며 앗훈비명(悲鳴)을 낸다。

동일장교는 겨우 정신을 녕고 로서아녀자는 혼자 저동차를 몰아가다가 그만 절야만야한 비탈에서 버러가려 떨리저버린다。

『아앗!』

하고 현옥은 부지중소리를 놉히며 경재의손을 꽉 쥐엇다。

갑자기일에 어르릉한것이다。허나 그러면서도 그는 좀이거지기전에 눈에고인눈물을 씻슬것은 엇지안핫다。

경재는 불아나올때까지 아모말도 하지안핫다。그때는 불쾌한생각보다 몸이곤한것이 더컷다。

그래서 중도에서손헤가자는 현옥을 바로 들여보내고 그도 곳 집으로 돌아왓다。

☆曆☆ 三月四日(水) 二月十一日 乙亥 ●日出六時五十三分 ●日入六時十二分 ●月出十八日(舊十一日)

劇藝術研究會 九回公演을보고 (三)

朴英鎬

맛계『撿察官』의『慘苦』 不自然에 갸갑도록 作者의 熱烈한 心臟의 소리를 듯는것과는 그러한印象이다。이 희곡의 이戲曲이 큐레엘(?)의 讀者를 破壞해버리엇다。

것이 원편한 이戲曲이 ... 로 되엿다는 遺憾엽는 辯護인 그리고 커—튼의 辯護士로서 것이다。或은 이정을 이作品의 法律的性格이라던지 一長이라고도 물수잇고 或은 一出世를피하는 貧短이라고도 보암직하다。御者를 자면 事件展開에 잇서서 두個의 크냐큰『모멘트』를 人物의 臺詞中에서 發見케한다。 ... 族途里의 野心滿滿한 사람으로 (宋在善扮)가 그의戀人인 風前燈火와 가티 눈압헤암 (金福扮)의 倩夫를殺害한 獄 ... 立身揚名의 危機를넘기는 無爆한맛이 들지안는다。그리고 라—의 不變色인 面이라는지 辯護士(兄)커—트(李雄扮)가 自己出世에 妨害가될까하야 동생『라리!』

罪狀 을 순긴結果 어떤不幸한 사람이 殺人의嫌疑를 밧고 死刑判決을 밧게되는場面이라든지 이처럼 劇的인 모멘트를 臺詞中에서 發見케하엿다든것은 作者의 根本意圖이므로 이것은 作者의 根本意圖이므로시방吾人의 是非할바가 아니여니와、左右間、이作品은 典型的인리아리슴의 作家로서의 作者의 偏見이랍든지 依怙最厦가든것은 一毫들보지안코 人間의 纖細한 心理를 凝視한 長篇恐怖詩인것이다。

거듭, 이런戲曲을 選擇한것이 이 如于大膽한 일이아니라함을 言明해둔다。그러키때문에 作者가 高調하러고한 主題는 어느듯 彷徨되고 紛失되고만다。그것은 두個의 勢力을 代表하는『키—드』와『라리—』의

性格 的類型化이다。第一場에『殺人한「라리!」』와『커—트나』와會見할때의 全허連絡되지안는 誇張된言動이라던지 第二場에『라리—』와 意外 스와더—』와 맛나슬때에『라리—』가 殺人할때의 光景을 聯想하는 場面에가도 誇張을넘어서 이것이 그와

「演」 唐犊 한動作과 表現은完全히 이作品을敗北의 境으로 럭繼하는수 밧게 다른道理가 업섯다。

이모두가 本質的으로 이作品을消化하기어려운 條件들이다。

『어둠의힘』

톨스토이 原作
李光洙 譯
柳致眞 翻案

自然主義的 作劇法上 一大模範作이라 하야 世界文壇과 劇壇에 떠시엽는 驚異와尊敬의的이엇던 杜翁의原作『어둠의힘』全五幕——一名 발흠하나가 웅노(良)에 걸리면 코새는마즈라이다——의上場은 오히려暫時의遼憾이잇다。

×

劇硏과 演技硏究에 들어가기前에 먼저朝鮮化된『어둠의힘』의內容부터 紹介하자。

—이야기—

『表生員은 시골富農이다。그는 病으로 多年間呻吟하고 잇다。妻生員의 後妻인 崔氏는 自己집 머슴떡쇠를 사랑한다。그러나 떡쇠는 이미 따른집에서 머슴살이 할적에 간냥이란 계집아이를 버려준바잇섯다。

떡쇠의父는 떡쇠가 남의계집아이를 버려주엇스니 自己아들을 잡에따려다가 간난이와 結婚식히려한다 그러나 떡쇠는 邪慾한老婆로서 病人인 表生員을 毒殺하야 崔氏와 떡쇠를 同棲시키려하엿다。

그래나 崔氏는 毒殺까지는 못하고 表生員은 病死하엿다。表生員의 死後。崔氏는 떡쇠와 同棲하게되나 떡쇠는 다시 表生員의前室의딸 愛玉을 사랑하게되여 崔氏는 또시 離境에빠지는것이다。』

이것이 翻案者자 푸로그람에 적은解說의全部이다。原作에 버추어보자면 만히틀린는데도 잇고 또柳致眞氏의 유니크한創作的野心이 無形中에 들어난데도 間或보인다。그러나 그런點은엇마던지 諒解할수도 잇고 차라리 그러케하는것이 效果的일지도 몰은다。一旦朝鮮化라는 絡印을박고 翻案되는以上 어듸까지 朝鮮的이여야만하고、어느程度까지는 原作과달러진다손치더라도 朝鮮의農民現實에 接近식히여 農民들의 素朴한 土語라던지 風俗이라던지 情調라던지가 全的으로 朝鮮作品다워야할것이다。

그러치안코서는 이作品을 朝鮮化하라는初意가 다다。大槪、脚色이나 翻案이라하면 戲曲이안인 小說을 戲曲化함을 일카름이겟는데(그러라는것은 斷言은안이나) 戲曲을 飜案한다는것은 좃커북한條件이다。

게다가 수천生活과 風情이 다른外國戲曲을 朝鮮化한다는것도 凡夫의事가 안이다。이런見地에서 戲曲의翻案、外國劇의朝鮮化를 一時에兼한 柳致眞氏의 大膽도 수헙지안타。

發聲映畫小考 (四)

—特히올·토—키에關하야—

林 唯

過去의 映畫藝術은 臺詞劇에서부터 絕緣함과 共히 獨立한데그 特點과 長點이 잇섯든것이다。그럼에도不拘하고 그것이 도로 臺詞劇에로 逆行한다는것은 退步를意味함은 勿論이며 映畫藝術이 開拓한新領土와 未來에對한 美術的發展을 放棄하는것이라아니할수업다。

그러므로 筆者가 토—키를排斥하는理由가 여기에잇는것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論한토—키라고한것은 會話를主로한 올、토—키(全發聲映畫)를 指示하는것이라는것을 도한이저서는 안될것이다。

또 다른토—키가잇스니 即音響을主로한『사운드、토—키』의發明은 映畫藝術이 進展할本質의精神과 一致하다고 할수잇다。

即換言하면 寫眞의 相伴하는 自然의音響—바람소리 물결소리 動物의咆聲、機械의廻轉聲、群衆의 絕叫聲等의 自然聲은 音樂과가티 世界的으로 共通됨은 勿論이며 會話의 差異를 超越하야 萬人에게 理解되는故로 如上한 發聲映畫는 無聲映畫와가티 世界的普遍性을 包含하고 잇다고 할수잇다。

그러나 올토—키는 言語의差別이 存在함으로 米國映畫가英語國民以外 市場으로부터 敬遠됨을따라 自國內에서만 封鎖될것은 明確한事實인것이다

그러나 그와反對로 音響發聲映畫의 市場은 世界的이어서 未來가洋洋한것이다。

文學的乃至 臺詞的說明形式에서脫却하야 純粹한 印象主義의直覺的表現에로 進展하는映畫라야『올곳이는美術』의 完成을 圖謀하게될것이다。

그러나 映畫가 必然的으로美術을 規範으로 할理由는 또한 업는것이다。

映畫에잇서서 會話가 內容을說明한다든지 또는 構造의主題가되여서는 絕對로아니되는것이다。그것은 舞臺劇의 慣用手段에不過하고 映畫로서 取할方式은아니기때문이다

映畫가 萬一 그키(其)를 象徵的인 表現과 가티 劇的效果을 ... 用하고 ... 하야 ... 失脚을 ... 完成되는 ... 一 ... 라서 『나치오날』의 切實한 實現을 파할것이다。그러고 그『自然』의領域을 到底出現의 一貫된本質이며 따라서 本質이아니여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從來의 無聲映畫는 그重要한 自然音의 歡聲도업기때문에 그보지못할不滿과 그自然音을 잇는것이다

台詞가업는 映畫에對하야는 何等의 不自然도 늦기지안코나 音響이 업는映畫는 노리기업는音樂을듯는것과가튼 不滿과 不自然함을늣는것도가튼것이다。

如何한 意味에서 토—키의發明은 前述한缺點으로보아 映畫의缺陷을 救濟하엿다고도할수잇다。

압서 토—키를排斥한筆者가 여기서는 도로—키에 對하야感謝할義務하는筆者의論旨가 矛盾至極하다고할사람도 이슬지모르나 筆者의着眼點은 올、토—키에잇는것이아니고 사운드、토—키에잇는것이다。

重言하는것가트나 最初부터 映畫藝術은 舞臺劇과다른 形式으로서 發展하여왓고 演劇과가티 台詞와會話로써 內容을運用하지안코 直接의『自然』에서 寫實의 構想을採擇하여와다는것은 누구나 다—周知하는事實일것이다。勿論그야 自然으로서의人物도恒常 會話를交換하므로 會話도 寫實의一景이 되지안는바는아니나

그들의겨울

(右는 바울의妹의 振袖을拂하다가 말고 新聞休暇하는 크라、겨블 (左上)은「牛乳」다리고 아버지노릇을하는 하레이가재미잇게 閒談하는光景。左下는 죠니·와이스물라—와 지니타·쿠이그

돈템이스타 今年은누구

양키의시럼조調査

今年은 前年度의 월、로쟈스를 廢薦하고 滿六歲의 쉘리템플이 第一位를 獲得하얏다

쉘리、템플	FOX
월、로쟈스	同上
크락、게블	MGM
아스레、묘쟈스組	RKO
크로렛트、콜벨	파社
뒥、파우엘	WB
올레스、피아리	MGM
죠、E、부라운	WB
젬스、갸그니	WB
그다음으로는	
메이、웨스트	파社
핑、그로스비	上同
푸렛드、아스레아	RKO

진자、로쟈스
월리암、파우엘
자네트、게나
진、하로
노마 시아라
W、C、필드
쿠비、키라

	上同
	MGM
	無所屬
	MGM
	上同
	파社
	WB

그러고 그레이스·무어는 二十二位、가다린·헵방은 二十三位 푸레데릭·마취는 二十五位、게리·쿠파는 三十一位 조지·라프트는 三十二位 마나·로이는 三十三位 그레타·갈보는 四十四位 쭐、무니는 四十五位 보리스·카로프는 五十位 로렛타·양은 五十一位라는 順序로 되야잇섯다

모손、픽쿠어、헤랄드誌主催의 돈템이 스타의 調査는 例年과가티 全米 獨立映畫館經營者의 投票로 決定되얏다。그것은 館主의 任意로 投票를하는것이 아니라 一九三四年九月一日로부터 一九三五年九月一日까지 滿一年間 가장 入場券이 만히 팔리든 스타를 投票케 하는 것이다。그런데

海外映畫消息

『佛蘭西篇』

『娼婦敎育』(파레—·나탕映畫)는 아르동과 재르비동兩氏의 合作한 評判의 戲曲을 映畫化한것이다

『지넨트』라고하는『로만티』하고 『센디멘탈』한 어엽븐계집에가 여러사람의 男子를 겻처서나중에 禮儀作法까지배운 高級娼婦가되여가는 經路를 그린作品 喜劇味와또한그것을 아름새여가는眞實味가잇서서 卑俗에떠러지지안코 舞臺的이면서 재미나는映畫이다。監督은 피에르·쏠라베에(?) 氏。出演은 레이뮤氏。앙드레·루쏘·쎄—르(?)、「앙리·루—세르」氏 등이다。그리고 이映畫에는 臺詞와演技로 普 ... 함마한데 音樂은 베스氏 ... 라는 ... 미시엘·케르베르氏와 쏘르다·포—에兩氏

『악은 녀자 가미로·말리(?)』 ... 이 흥미잇는것이지만 出演俳優의 演技도조코 臺詞도조흐며 구나 畫面이매우 아름다운때문에 누구라도 조하할作品이다。작크·나탕종氏의 原作及臺詞로 V·투—르잔스키—의 監督한것이다。이야기는 一九三三年『모스코반』를 背景으로한아버지와 그딸의이야기이다。『앙리·포—르』氏와『시몬느·시몽』이 主演『장피에르·오—몽』氏와 助演으로 카미리안』『휘부』『퓨레시아—·베—크』 라마스롯드르메시아 메드·피치도 ... 봐—냐투—트(?) ... 『엇트』... 『마탄드·슈라르』... 作品 氏와 ... 『스크립트』 ... 蘭한 ... 것 ... 『부왜피—르』 『케—네』 ... 『롱』 ... 新映畫 ... 가 ... 스나 ... 愉快하고 재미나는映畫이다『루시앙·파루—氏와 ... 드리코』

의喜劇에 老練한兩人이 文柱가되고서 거긔에『쎄리나』로扮한『재르메—느·로—제』孃이 新期的出演을하엿고 다시新人으로서『이랑쿠·류아베』氏의『타스퀴』氏『자딘』과 겨—즈(淀)喜劇을 엽어 끌고잇다。音樂指揮는『미시엘·레빅』氏。

『愉快한英雄』(아마크스·펠린作品)은『안드레·비라보—』氏의小說을 映畫化한 보드빌 諷刺와의 交叉線上에잇는 映畫인데 主題의재미잇는것을 잔살리지못한作品이다。『크리스찬·작크』氏의 監督『앙드레·뤽』氏 助演으로『잔·버—나르』氏 크리스찬·쌕、쏘리—뉴 ...

『君臨의 마리』(크로—노·둥빌映畫)『마르셀·부레보』의 心理小說을 映畫化한것인데 同監督의 寫實的 手法 ... 에 ... 가 ... 映畫 ... 的 獨創性과 簡潔한 描寫는 ... 『마리—부』 ... 扮한『미레이유·버란』孃... 『프란시스·카르베르』 ... 『이나—르』兩氏 ...

推薦映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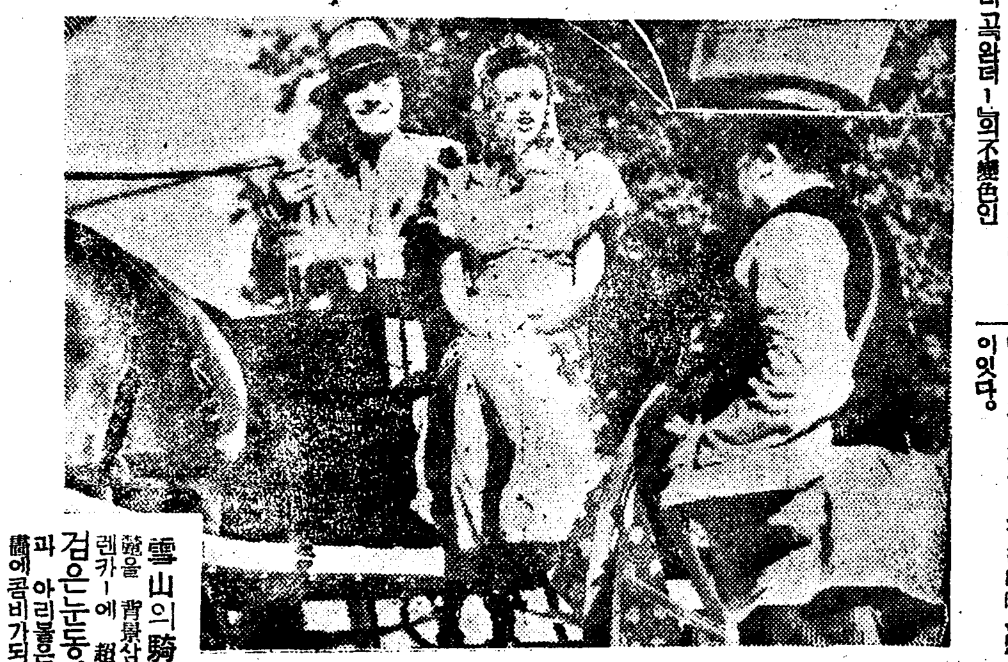
米國映畫檢閱局

米國것으로는

處女여 한숨쉬지말라	RKO
아나、카레니아	MGM
孤兒다뷔드이야기	MGM
빗나는百合花	파社
사내의對敵	RKO
아! 無情	UA
뻥갈의槍騎兵	파社
파운티號의叛亂	MGM
人生은四十二로부터	파社
콕·로빈은 누가죽엿나	UA

또 歐洲것으로는

차파이에프	쟈브르
罪와罰	콜럼비아
最後의億萬長者	上同
暗殺者의집	쟈브르
同處女地	上同
어머니의손	콜럼비아
新가리바	쟈브르
農夫	上同
라·파라이유	콜럼비아
마키심의青年	쟈브르



雪山의騎士 맛타—호른山麓을 背景삼고스키의王者 트렌카—에 超人的活躍

검은눈동자 시모네·시몬과 아리봄은 다시한번 이映畫에콤비가되야 나옵니다

라디오

三日(火曜)

◇午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스위스』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道德上批評』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迎春하는動物이야기』 趙福成
◇同八時 春蹄歌外 一、春蹄歌 二、제개歌 三、각기이打令 四、悲愁調 五、孤獨의悲愴 曹松剛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伽倻琴 金文春 洋琴 金相淳 五、編 朴在順 長鼓 金蕉紅

四日(水曜)

第一放送

◇同九時 連續唱劇調『興夫打令』(一)—興夫집터닥는데— 金昌龍 鼓手 丁元燮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午後六時(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青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釜)講演
◇同八時(東)狂言
◇同八時二五分 맨돌린 기타— 맨도라
◇同九時(大)歌謠레뷰—
◇午後〇時〇五分 古談『夢中南原府史』 金錫九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第三回)『一般料理에對하야』 金浩植
◇同六時 라디오世界一週修學旅行(二)『스위스』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新聞과社會教化』 柳光烈
◇同八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小春香歌 郭山月 郭明月
◇同八時三〇分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 作品六十八 하이든作曲 가、프레스토 나、미누엣도 다、스케르잔도 二、絃樂四重奏 作品六十六 하이든作曲 라—르고 延專四重奏團

第二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어머니의時間
◇同〇時〇五分(東)라디오·코메디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童話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一〇分(東)管絃樂
◇同八時四〇分(東)新內
◇同九時(東)漫談

五日(木曜)

◇午後〇時〇五分 놀냥外 一、놀냥 二、양산打令 三、뭥山打令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調理와營養素』 金浩植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行進曲…金瑞嬰 二、服舞曲 三、鄕愁…金瑞嬰 … 洪蘭坡作曲 四、組曲靑春 … 金瑞嬰編曲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講演『受驗의秘訣』 沈亨弼
◇同八時 새타령外 一、새타령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報念佛 興打令 吳翠翠 慎淑 大笒 朴鍾應
◇同八時三〇分 未定
◇同九時 俗曲 一、景福宮아리랑 二、咸鏡道아리랑 三、江原道아리랑 四、密陽아리랑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奚琴 池龍九
◇同九時二五分 詩調와誦書 一、詩調 二、三國記 李文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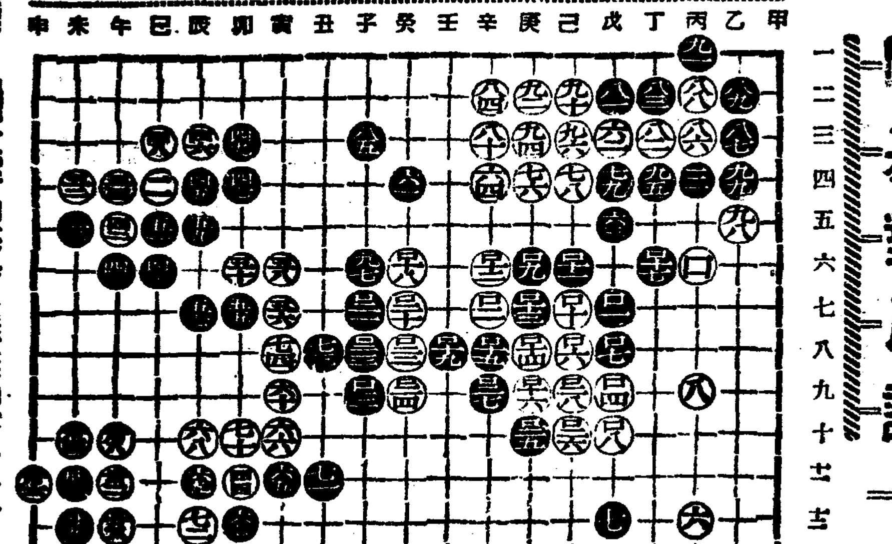
第二放送

◇午前一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大)모던小唄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名)이야기
◇午後六時二五分(大)趣味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舞踊劇
◇同九時〇〇(仙)俚謠

圍碁對局譜 =8=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 權秉郁



◆觀戰者談

黑□一七(子의六)은 自身을安全케하는 手이나 此際에 白의 五의五에 接近하는 것도 一策이다。白子의五、黑庚의五、白子의四、黑子의六、白癸의五로 黑子의五、黑 ... 取得할지니 黑의 中央進出과 實利가 丁의大보다 有利하얏다。

라도 白□二、□二의 二目을 取하면 黑이 不利하다。對局感想에 黑은 絕對同感이다

黑□一九(壬의八)은 癸의七에 白의進出을 牽制하는 妥當한手다。黑□一九로부터 白□二八까지 成行이 白에 絕對有力케됨은 黑□一九의 緩漫之失가 아닌가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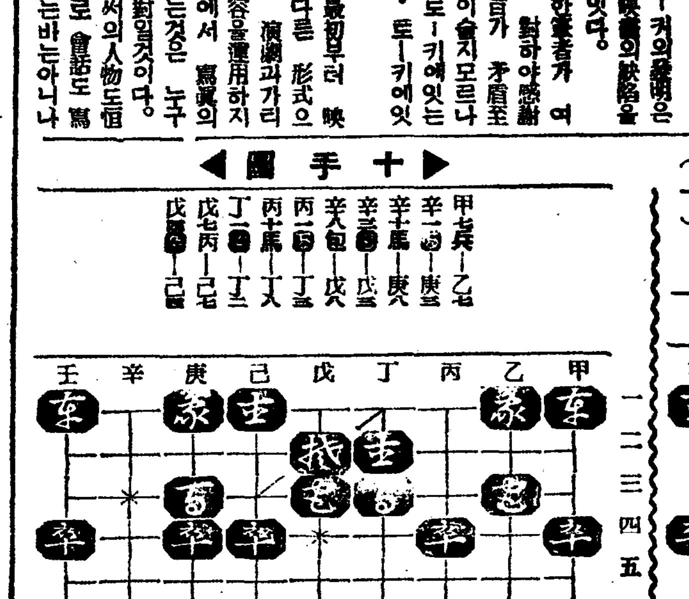
將棋名手對局譜 (一)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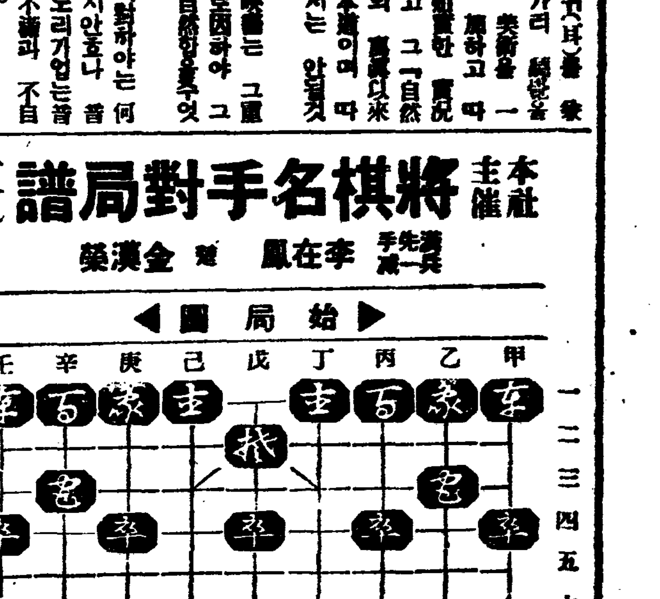
手先 漢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十手圖▶

甲七兵—乙七
辛一句—庚三
辛十馬—庚八
辛八包—戊八
辛八象—戊三
丙十馬—丁八
丙二馬—丁三
丁一象—丁三
戊七兵—己七
戊三象—己三



◀始局圖▶



特選의傑作映畫大封切! 二月二十九日부터開封! 劇場事情에依하야 一部始映時刻을左記時日에보하나이다 自二月二十三日 至三月六日 第一回始映時刻은 午前十一時二十分으로함 本社 米國 메트로 레이더라—氏 監督 찬도의復讐

유社特作全發聲日本版 新進活劇 에드우인마—린氏大作品 鋼道의銃彈 突進突進! 亂飛突擊! 骨鳴肉裂! 乾坤一擲的大探偵大活劇 續映

貫鐵洞 優美館 電光三九五

大都映畫特作現代劇 吉村操氏 監督 お好み串差おでん 佐久間妙子、伴淳三郎 大岡怪童 大共演

左記の如く變更に成りました。何卒よろしく御願致します。

二月二十六日より三月三日まで 上映時間表

一、新婚三壘打 一·三〇 三·一〇 四·五〇 六·三〇 八·一〇
一、雪之丞變化 解決篇 二·一〇 三·五〇 五·三〇 七·一〇 八·五〇
一、蒲出超ナンセンス映畫

△噫 薄情 山口勇、小倉繁、瀧川翁子

△新婚三壘打 二、蒲出超ナンセンス映畫 小倉繁、出雲八重子

△雪之丞變化 解決篇 衣笠貞之助監督作品 林長二郎主演 連續一ヶ年波瀾曲折の物語り愈々解決!!

三月四日より封切の二大待望篇

洋劇專門 浪花館

△花嫁くらべ
△め組の喧嘩

三月四日ヨリ八日迄五日間破格大公開御入場料斷呼階下席大人二十錢小學生十錢 十二時半 夜六時半始上映順

佐久間妙子 大都頼特作 水島道太郎主演 三枝源次郎監督 現代劇 旅の踊り子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阿部九州男 木下要葉 時代劇 祭囃子金平市 松材光夫主演 久野あかね 監督は巨匠白井戰太郎 大都頼大作品

さらば海軍兵學校 四掌堂封切るバラマウント本年度超大作の國一感銘と昂奮のアレキサンダー・ホール監督 サー・ガイ·スタンデイング リチャード·クロムウエル ロザリンド·ケイス トムブラウ 助演 主演 昔日の武勳を語る一つのヴレーグレス號が今標的艦として新鋭戰艦の前にある艦と共に年老いし退役の老艦長の哀傷今は想出の正裝にて老艦と最後を共にするああ武人の此涙あり

(やらば海軍兵學校上映時間) 晝三時ヨリ 夜九時より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三五番

三月一日부터全鮮最大日間特別大公開! 料金 大人一階上三十錢下二十錢 均一 小人 朝鮮映畫株式會社 京城撮影所第三回作品全發聲版!! 監督 共同監督 李弼雨 撮影 音響 薔花紅蓮傳

薔花와紅蓮이는 ... 그리고 이 ... 머니를이어고 不幸히 ... 맛닷다 ... 薔花紅蓮은 ... 하야 ... 主演

西部活劇 冷藏庫의秘密 監督 主演 ... 社 劇映畫 그날의眞心 監督 主演

廣橋洞 花劇場 電話 二三三三番

全郡民六萬餘名中 小作農이五萬五千
土地所有者는萬餘名에不過
伊川郡農民의貧乏相

【伊川】 조선사람의 살림사리가 나날이 쪼들려가는 사실은 종명한 사실이다 현재 강원도 이천군의 일개군의 농토소유관계를 통계상으로보면 군민의생활상태를 엿볼수잇다 이천군의 경지면적은 민유과세지(民有課稅地)가 전(田)이 일만구천이십사정보 답(畓)이 일만팔천일정보 대(垈)가 사백구십륙정보 잡종지가 이십사정보로서 이에 농가호수가보면 일만이천사백오십구호로 인구는 륙만칠천구백륙십오명인데 이제토지소유자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선인으로 십정보이상의 소유자가 불과 일백사십이명 일단보이상소유자가 일만일천재백명 일단보여하가구백이십삼명중 일본내지인과외국인 서십칠명을 제외하면 일단보미만의 토지라도 가지고잇는 토지소유자가 일만이천사백십팔명으로 결국농가호수와인구로서 오만오천오백사십칠명이 순전히 자긔의 소유토지가업시 소작또는 화전민이라는 참담한처지에 잇는것이다 한편의 토지가업시 농사하는 오만오천오백여명의농민을위하야 농토를 주어야할것은 말할여지가 업는것인바 이상통계로서 과연이천군민이 얼마나 빈한한것은가히 알것이라고 한다

問題의崇專 崇中 朝鮮人校長選任
今明日中에決定實現?

【平壤】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교장문제는 숭전교장과 숭중교장의 교장으로 다년간 향교의 교장 또는교감의직을 가지고 만흔공헌을 드리운 모의리(牟義理)박사로 결정되엿스나 조선인 숭전부교장과 숭중교장문제는 설립자 마포삼열(馬布三悅)박사의 흉중에 김히감초고잇서서 아직 발표가업는바 향교에서 중에서 긔일을 정치못하고잇는것은 졸업장에 서명할 책임자가 업기때문으로 도당국에서도 급속히선정신청을 요구해왓고 학교자체로도 급속한 수속을 할필요가 잇서서 서둘고 잇는터이어서 금명중에 결정이 잇슬모양이다 따라서 숭의문제도 전후하야해결을 지울것으로 추측되여 누구가 교장또는 부교장으로 입명될지는 자못 주목처가 되여 잇다

無產兒教育機關
東一書堂의盛運
基金三千餘圓을造成하고 昇格目標로活動猛烈

【鏡城】 함북경성군내(鏡城郡內)에서도 광산지대로 유명한 생긔령(生氣嶺)은 탄광로동자의집단부락으로서 존재한지도 수십년이되는데 빈한한 가정의문맹아이들은 학문이 무엇인지도모르고 그날그날로동만 하여갈뿐 그수효는 날로 증가하야가는데 이무산아 교육긔관으로서는 오직 마사리의현착한 동일서당(東一書堂)이 십여년가량 존재를 유지하고 잇섯다고한다 그런데 무진장의 석탄채굴로 전도유망한 동지대는 로동자의집중에 따라 교육문제의 중대함을 늣긴 유지들은 수년전 부터 이방면에 주력하야 오든중 작년에는 동서당을 평장하게 신축하고 성대한 락성식을 거행하는등 일반이 적성을 집중하야 오든터에 이제 신학긔를 압두고 일층 면목을 새롭게 하기위하야 지난 이월십륙일은 유지들이 회합하야 교사증축과 긔본재산 적립을 시급히 하는동시에 사립학교 승격운동까지 하기로 결의되여 동회한측석에서 유지 이십이명이 공동림야(共同林野)삼만사천이백구십평과 답(畓)사천사백오십팔평(時價四百圓)을 학교명의로 넘기고 금액으로 삼천원을 채용하야 증서까지 수속 완료하엿는데 총재산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삼천오백사십여원이라고하며 아직도 긔부금은 답지중이라는데 피선된 위원제씨는 긔회를 노치지안코 계속하야 사립학교승격을 목표로 군당국에 협의 수속중이며 일방 당지 광업소(鑛業所)에서는 매월 현금 십오원씩 보조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석탄(石炭)은 전부 부담하야 주게되엿다고한다

▲委員長 全在翊 委員 尹福連 尹鵬九 尹治龍 南宋哲 外十三名

平北女子高普 寄附繼續遝至

【新義州】 평북녀자고보설치긔부금모집은 긔보와가리 신의주부내의 책임액은 유지들의 열십으로 거의완납되엿스나 각군부의분도 그간축속모집되는중이나 위지로계속로 다소는낭하리라 판로되든중 정주(定州)에서도 지난 이십구일 일천오백원을 모집하야 평북도청으로 보내여왓는데 그간 군부로부터 모집되어온돈액의 총액은 삼만원에 달하다 이현상대로 진행되면 삼월말까지에는 책임액이 완납되리라고한다

天井不知의柴炭價 一躍倍價로昂騰
一般住民은極恐慌

【牙山】 온양온천에서는 금번나무갑의 폭등으로 일반은 우려중에잇는바 일개월전만해도 칠팔십전에불과하든나무갑시 지금에는 그배의폭등을 보게되여두롱거리로 역이는바 그원인은군당국의 에림장려가심한 한편에 근래희유의 혹한으로 자연신탄이 적어짐으로 신탄가격이 폭등하다고한다

中年寡婦의 產兒壓殺發覺

【會寧】 지난이십칠일에 회령경찰서에서는 중년과부의 몸으로 자긔가 나흔자식을 남보기에 수치된다고 난지 불과 메칠만에 압살하야 우물(井)에 던진것이 발각되여 살인죄로 취조를마치고 검사국에 송국되엿사실ー그는 종성군풍곡면 운봉동(鍾城郡豊谷面雲峰洞)에 사는 오봉도회(吳鳳林花)(?)란녀자로 십칠세때에 자긔부모의 지정하여주는 남성과 결혼하여 자미잇는 부부살림을 하야오다가 자긔가 이십세되든 가을에 남편은 불행하게도 이세상을 떠나 불귀의객이되고 마럿고 이래쓸쓸한 생활을 하야오든중 작년 봄부터 또한게 동리에사는 양귀운(梁基雲)이란 남자와 남모르게 비밀의 관계를 비저오든중 작년사월 하순경에 불의의 녀아를나케되자 이것을 큰수치로 생각하고 잔인하게도 그어린아이를 압살하야 그동리 우물에 던진것이 지난일일 상수경에야 발견되여 종성경찰서에서 취조를마친후 일건서류와함께 청진법원 회녕지청검사국으로 압송되엿다고한다

兄弟座俳優의 流血의亂鬪劇

【牙山】 지난 이십팔일부터 온양온천(溫陽溫泉)에서 흥행중이든극단 형제좌(兄弟座) 현성완(玄聖完)일단은 이십구일오후십시반경 연극을 끄맛치고 막을 고요히잘든 온양온천유정 가로상에서 막을여럿든바 탐문한바에의하면 동극단의 명배우인 양모(梁某)와 악사부에잇는 마모(馬某)간에는 일개의 여우(女優)를 마음에두고 피차에노리고잇는 나머지 결국에와서는 삼각갈등의 원한이되고 급기야 사랑을빼앗기게된 마모는 분노함을 참지못하야 연적인 전미 양배명을 무수란타하야 혼도상태에 까지빠지게하엿다하며 방금 전조선극계에 큰센세슌을일으키고잇다

會寧長老教會의 세가지會合
來十八日부터

【會寧】 회령야소교장로회(耶蘇敎長老會)에서는 오는십팔일부터 이십삼일까지 회령장로회례배당에서 함북로회교역자 도사경회를 개최하고 이십사일 부터 이십오일간은 함북로회를 소집하야 꼿을마친후 이에 계속하야 면려청년회련합회를 소집하기로 되엿는데 금번집회는 때가때인 마치 상당히 문제거리가 연출되리라고한다

自動車事務員 部金窃取潛跡

【信川】 신천읍내에잇는 해서자동차부(海西自動車部)사무원겸운전수로잇든 중미섭(中尾涉)이라는자는 수월전부터 신천온천(信川溫泉)방면에서 유흥에빠저 금전을마구소비하야 오든바 월말결산일인 지난일일에돌연 종적을감추어버렷난데 동자동차부에서는 그의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한바 그는처자(妻子)를다리고해주(海州)로가서 다시해주방면으로 다라난형적이 잇다하야 즉시 소관신천서에 고발 수색중이라는데 그는 출생으로 경성(京城)에 와잇다가자동차부에온지수년 사무원으로잇스며 주인으로부터 신용을 어더서 모포(毛布)행상(行商)을 부업(副業)하고잇는바 전긔자금은 전부유흥(遊興)에소비하고 드디여 도망하게되엿다한다

始興郡廳誘致코저 郡民大會를開催
來五日安養公會堂서

【永登浦】 오는사월일일부터 실시될 경성부구역확장에의하야 시흥군청 소재지인 영등포읍(永登浦邑)일대는 자연시흥군(始興郡)에서 제외되는동시 시설에잇서서 밀접한관계를 끈케되엿다 어시긔를계긔로 군청사가 너무나한편에 치우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리불편을 늣기는 일반군민들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보아 군관할지역의 가장중심지대가되는안양(安養)으로 유치이전코저 몇칠전에 긔성회를조직하고 조선직물주식회사(朝鮮織物株式會社)안양공장장(安養工場長)동전원차(田元次)씨를 긔성회장으로 선정하야 안양공회당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키로 되엿다는데 그결과가 매우주목된다고한다

◇…新築落成된東一書堂 (鏡城)

말성만흔丙子年
未曾有의水饑饉
飲料水를中心傷害事件까지
人心騷然한平南一帶

【平壤】 강우와 강설량이 적엇기때문에 도시평탄부 산간지대를마론하고 우물의 물은고사하고 하천의물까지 말나버려서전고미증유의 물긔근시대를 일우웟다 음료수로 가장곤난을 늣기는 곳은 대동(大同)안주(安州)순천(順川)양덕(陽德)녕원(寧遠)진남포(鎭南浦)등가지로 진남포도시에서는 화재라도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후포천(後浦川)의 하수구를 막아소화용수를저장하는상태이다 음료수를 중심으로 도내도처에서는 상해사건까지만드러내이는 물소동싸홈이 끗치지안허 잘물 못자고 물깃기에 여념이업다 양덕과가튼 지방에서는 몬지가 석긴눈(雪)을 산록에서 운반하여다가 녹혀서 긔갈을 멈추고잇는상태이다 이때문에 자고이래 말성만흔병자년(丙子年)의 농사는 결국대흉년을 면치못할것이라하여 농촌방면의우려는 절정에달하엿다

鐵原支局主催 全朝鮮蹴球戰
來廿八九兩日間

【鐵原】 본보철원지국에서는 오는이십팔, 구양일간 제일회전조선축구대회를 철원읍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원근을물론 만흔참가가 잇기를바라며 신입긔일은 금월이십륙일까지라하며 금후로는 년중행사로 거행할터이라한다

生活苦를悲觀 壯年男子自殺

【南海】 남해군남해면심천리출생(南海面深川里)의 박소영긔(朴小永基)는 전달이십팔일오전팔시 집을떠나서 마을에서 약이정되는 뒷산록의 솔나무에다 목을매고 자살한사실이 잇는데 원인을 조사하야본결과 전긔박소영긔는 십세미만부터 생활난으로 품파리를하다가 이십칠세시에 일본내지에건너가서 이십년간 로동시장을 돌아단엿스나 저축은고사하고 호구도 어려움으로 금년구세모에 다시고향을 차저왓스나 밧가이 마저주든그의형도 녀지못하형편이라 못처럼 차저온 고향의생활고는일층더심하야 그리케 자살한것이라한다

東部幼稚園同情 映畫와音樂의밤
兩日다超滿員의盛況
文友堂主催、本報支局後援

【統營】 통영부도정 문우당(文友堂)에서 금번신춘사업의하나로 본지국후원으로 지난이월십칠팔 량일간 봉래좌(蓬萊座)에서 경영난에잇는 동부유치원(東部幼稚園)의 유변공유비보조 목적의 영화와음악의밤(映畫와音樂의夕)을 예정과가티 개최하엿는바 일반시민의 대환영과 대하하에 량일간 정각전부터 입추의여지도 업시 대만원을일우어 예상외의 대성황리에 영화와 음악의밤은 맛치엇는데 총수입금이 이백구원구십팔전(二百九圓九十八錢)총비용지출금이 일백삼십구원이십팔전으로 순이익금이 칠십원칠십전(七十圓七十錢)인바 문우당주최측에서 긔부금 구원삼십전(九圓三十錢)을합하야 일금팔십원야(一金八十圓也)를 지난이월이십팔일에 동부유치원원장 양재군(梁在君)씨에게 전달하얏는바 일반사회관계자측에서는 만흔찬성을마지안는다고한다

◇映畫委員ー張炳琯 金炳熙 裵寶洙

仁川公立普校 一學級을增設

【仁川】 경기도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校)는 과거수년간보교입학난으로 학령아동 교육문제에 암영을던지고 잇든바 금년도에는 더욱신입생 과잉으로 참다못하야 학부형급 지방유지들이 궐긔하여 지난이월이십구일 오전십일시에 상도(上道)하여 내무부장과 학무과장을 방문하고 삼학급증가를 진정하엿든바 도에서도 재정관계로 겨우한학급만 증급해주겟다는 유의한 말을듯고 도라와다고한다

燐寸會社全燒
損害額一萬餘圓

【鎭南浦】 지난이십구일오후세시 삼오분경 양곡창상 중지도(中之島)에잇는 평안성냥회사(平安燐寸會社)창고로부터 돌연불이 일어나 삼시간에 동회사를 전소하고 오후네시반에 진화되엿는데 손해총액은약일만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상자에너흔 성냥갑으로부터 자연발화가 된것이라고한다

工費百廿九萬餘圓 土木事業實施決定
其中國庫補助八十三萬餘圓
慶南道明年度事業案

【釜山】 경상남도의 소화십일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요지음편성을 종료하고 그대강을 발표하얏는데 그예산면에 나타난 명년도 토목사업비 즉 국고보조의 사방공사 도로개수공사 항만수축공사 림도개설공사 항로개수공사 사방공사 지방하천재방공사 지방항만수축공사등의 사업총비의 총액이 일백이십구만오천구백여원에 달하는데 그중국고보조액이 팔십삼만이천칠백여원 비긔채액이 삼십칠만사천이백여원 일반재원액 구만여원 계지원인부담액 이만여원 등이라하며 그공사내역의 대강은 다음과 갓다한다

洛東江流域砂防工事費	七〇六、六〇〇圓
一般砂防工事費	四〇〇、〇〇〇圓
道路改良工事費	二二〇、〇〇〇圓
河川改修工事費	一八〇、〇〇〇圓
港灣修築工事費	九〇、〇〇〇圓
林道開設工事費	一五、〇〇〇圓
地方河川堤防改修工事費	一六、八三五圓
地方港灣修築工事費	一一、八三〇圓
其他土木工事補助額	一一、一〇〇圓

賭博資金엇고저 正租盜賣타被逮

【廣川】 충남보녕군웅천면대창리(忠南保寧郡熊川面大昌里)에사는 최가봉(崔可奉)(二二)은 지난이십칠일새벽에 동리조준호(趙俊鎬)농장에 침입하야 정조여섯가마니를 도적하야 그시내에잇는대동곡물산업주식회사(大同穀物産業株式會社)에매도하다가 현장에서 웅천주재소정찰관의손에체포되여 취조한사실에의하면 그는 도박장에서 자본금을일코 허왕에뛰어나는마음으로 도박자본금을 만들기위하여 도적하엿다고 자백하엿다한다

地方人

▲高運河氏(鐵原邑衆榮會會長)二月二十八日鐵原郡鐵原邑月下里三〇番地自宅에서長逝 葬儀는三月五日東鐵原驛前에서永訣式

咸州地方中心으로 炭疽病依然猖獗
咸興署豫防注射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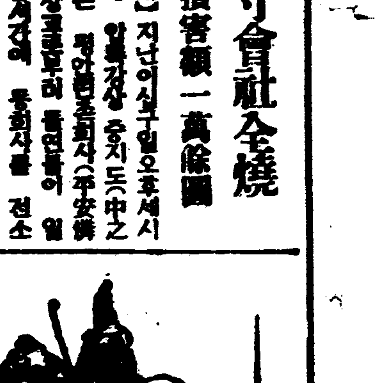
【咸興】 함주군일대에는 작년겨울부터 무서운 축우탄저병(炭疽病)이창궐하여 작년중에만해서 한 축우가 오십여두의 다수에 달하며 아직도 이십륙두나 결정되지 아니햇다고하는데 차차 봄이되면 더욱 창궐할것을 우려하여 함흥서(咸興署)에서는 어떠한관계로 아 오는 륙일부터 십구일까지 전부 삼백여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를 시행하기로 되엿다는데 해탄저병은 축우뿐이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무서운 병이라함으로 일반은 매우 주의하여야하겟다고한다

숨은慈善機關 天主教養老院
—南浦人士여! 同情하라!

鎭南浦社會에 아직公開되여 잇지안흔 숨은慈善機關一個所가잇스니 龍井天主教構內에잇는 養老院이다 그養老院은 天主教構內에잇다고해서 天主教會가 經營의責任을 지고잇는것도 아니고 六七年前 當地天主教神父徐伊良氏가 의지할곳업는 불상한 사람二三人을 救人의집에 依託시기고 얼마식의 生活費를 補助하여주기 始作하엿든바 어곳저곳에서 눈먼사람 절룸바리 半身不隨等의 不具者와 七八旬의 高齡者 들이 차저와서 살려주기를 哀願함으로 天主教構內에 草家一棟을 買受하야 十餘名을收容하고 徐神父가 一切經費를 負擔하여 오게 되엿다 이 消息을 듯고 黃海道、江原道、 먼地方에서까지 차저오는 이가잇서서 一二三年後에는 五十餘名에 達하엿다고한다 그래서 徐神父는 五百餘圓으로 집두채를買收하고 男女를 區別하여 收容한後 經營費一切를 負擔하면서 오늘까지 나려왓다 그러나 이무슨不幸일가 經營主 徐神父가 昨年十二月七日 不得已한事情으로 鎭南浦를 떠나게되엿다 그消息을 드른 五十餘名 老人들은 父母를잃은 아해들과가티 한심과 눈물로 歲月을 보내게되엿다 徐神父가 出發當時 後任神父가 亦是 經營을繼續해줄터이니 安心하라는 最後一言으로 적이 安心하고 잇섯든것이다 그러나 最近消息을 듯건대 그날그날을 겨우지내가기는하는模樣이나 徐神父가 擔當以來 그네들의 生活은 매우 困難한 狀態라고한다 우리同族五十餘名은 이러한 困難한狀態에서 晝夜로 苦痛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機關이잇는것을 알지못하고 잇섯든것이 아닌가 우리同族을 길너주기는 참아하지못할人情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人情으로보아 世界어느 民族에게 지지안을 鎭南浦人士諸氏여! 그養老院은 天主教의 經營이라 하여 吾不關焉의態度를 取하지말고 그네들을 우리따스한 품속에 품어 주옵소서! 悲心으로 哀訴하는바이다

◇蕭漢……同情老院에 收容되여잇는 父老들 一記者

異次頓의死 【108】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그러나 그만것으로 상감의 마음은 흐트러지지아니하엿다. 도로혀 상감은 이것이 다 고약한 무리의 작난이라고 해서 엄히 사실할것을 명하시나 그 명을 밧는자가 대개는 선마로의 편이엇다. 이에 상감은 고주에게 심복되는 군사 얼마를 주어서 절짓는 역사터를 감독할것을 명하엿다. 『몸을 놋커나 방욕을 부치는 놈이 잇거든 잡아 버히라』 하는 권한까지 고주에게 주시엇다.

이차돈은 자긔가 몸소 절짓는 일을 동독하다 하엿스나 상감은 이차돈이 잠시도 궐내에서 떠나기를 허치아니하시엇다 상감의 생각에는 사면초가중에 이차돈만이 유일한 밋븜이엇다. 이차돈만 궐내에 잇스면 악한 귀신이나 사람이나 도모지 범접할수업는것가티 마음이 든든하엿다.

이로부터 이차돈은 동궁에 혼자 거처하게되엇다. 평양공주가 그것을 안것은 메츨 후엿다.

팔월 초생 달이 넘어가고 감감한 속에 벌레소리가 요란한 어느 밤 공주는 곁에 잘든 시녀도 모르게 가만히 일어나서 현문을 열고 당연을 돌아 이차돈이 거처하는 방압헤 다달앗다.

이때마즘 이차돈은 잠이 들고 방은 불을 꺼서 캄캄하엿다. 오직 내전 쪽에 켠 장명등인 초롱 빗이 단장을 넘어서 희미하게 비초일뿐이엇다. 초마밋헤서 밤쥐가 날아가는것도 꽁주는 모르고 이차돈이 누어자는 방문 고리를 달각달각 흔들엇다.

『누구시오?』

하고 이차돈이 물엇다.

『이몸이오. 한 말슴 올릴 말슴 잇스니 문을 열어주오』

하는 공주의 음성은 떨렷다.

이차돈은 그것이 평양공주인 것을 알앗다.

『밝는 날에 불러도 늣지아니하올 말슴이면 이밤ㅅ중에 올리도 업사올것을』

하고 공주는 문ㅅ고리를 당긔엇다.

『황송하오나 지금은 아닌밤ㅅ중. 죽음게 오시와도 이 문은 열지못하올것을』

하고 이차돈은 초ㅅ불 압헤 똑 바로 안젓다.

『그러시기론 이몸이 이 아닌밤중에 온것을 대사는 자비심을 세우시다 하면서 급히 물어밤 잠이든 이 밤에 온 사람을』

『황송하오나 하실 말삼은 문 밧게서 하시와도 드자올것을』

『이몸은 부끄러움도 체면도다 무릅쓰고 온 사람, 문을 안열어주시면 이몸은 이 곳에서 문고리를 잡은채로 밤을 새오깃소. 이러한 망신을 하고 세상에 살수도 업고.』

그래도 이차돈은 대답이 업다.

『이문을 열어서, 이몸을 방에 들여서 이몸이 하는 말슴을 들으시고 대사가 몸소 이몸을 어몰의 방으로 다려다 주시기까지 이몸은 죽어도, 살아서는, 이 자리에서 한 거름도 물러나지아니하올것을.』

이차돈은 가만히 안저서 대답이 업다.

『여자의 편심에 한번 먹은 마음은 천지가 변하여도, 천지가 열두번 변하여도 아니 변한다는것을, 이몸이 대사를 생각한지 삼년에 죽을 병에 몸엇다가도ー대사로하여서 죽을 병이 들어서 일년을 넘어 앓아가도 죽지안코 살아난것은 어를 악물고라도 이 편심에 먹은 원을 풀자는것이어든, 죽기로 이 자리를 물러날줄 아오. 안 물러나오.』

그래도 이차돈은 가만히 안저서 대답이 업다.

『이몸의 몸에 품은 칼은 삼년내 갈고갈아서 좋은 광이 원 못 일홈을 아는 날이면 이 모미에서 이 칼로ー가슴을ー한번ー쿡ー질르지고ー이 가슴에 좋은 광이 어서 ……』

그래도 이차돈은 허공을 바라보고 눈도 깜작하지아니하고 잣자코 엇다.

映畫主題歌 그리운 廣寒樓 옛廣寒樓의 새로운情調! 金福姬 리-갈

림질 ネオチリン
可恐할害毒을流布식이는淋疾. 消渴의療法으로서兹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獎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 本劑는當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研究의結果成苦心研究의結果로서殺菌力이强하고急性慢性淋疾에著効가잇다. (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三月四日封切】 毎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四十分 六時半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에드와ー드・아ー놀드氏主演 따ー이야몬드・짐
◆M・G・N特作映畫 大陸非常線
わたしが お嫁に 行ったなら 山路ふみ子 杉狂兒
團成社

女流探訪記者
仁念寺奇談
元祿村雨笠
永樂町 中央館 電本局二

經濟解說

財界動態考察

② 大勢上根據諸點

申泰翊

생각한것보다는 國際市勢가 莫大한暴落이 업시 매우 影響이 적고 또는 二日로부터 열린 諸商品의市場도 平穩한狀態를 보히고잇다 이것을 가지고 보아서는 前回에 紹介한 論調와 가티 財界의 大勢는 그다지 悲觀을 가질 必要가 업슬것으로 생각할수 잇다 그러나 이것을 全面的으로 肯定하여야 올흘가함에 잇서는 얼마큼 躊躇치안흘수가 업는 疑點이 不無하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하면 이번事件은 表面的으로 落着을 보앗다고 하드래도 압길에 노힌 複雜한政局 또는 重大한財界事情이 將次어떠케 展開와 變轉을 許케될가 함에 對한 定見을 容易히 갓기어려운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에잇서 平穩한 狀態압에 잇스나 本格的으로 重大한時期 또는 重大性을 띄인財界情勢가 展開될은 참으로 今後에 잇슬것으로 보히는만큼 지금에 輕率히 悲觀할바도 아니지만 漠然한 樂觀도 좀 생각할일이라는데 理由가 잇다

×

그런대 오늘에잇서 어떠한 後繼內閣이 나오느냐 또는 그中에잇서 大藏大臣의椅子에 안질人物은 누구인가 함에對하야 큰關心을 둔다 이것을다시말하면 現財政은 金融、產業을 支配하고잇는 가장 큰要素로 되어잇는만큼 一層 後繼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은 얼마한變化를 보게될것인가 함이 가장 重要한點으로 됨은 當然한일이다 그러면 後繼內閣의財政經濟政策에對하야 一般은 어떠케보는가 함에는 大體세가지로 난와서 말할수가 잇다 卽

첫재・高橋財政의 延長이다 卽昭和七年以後의 財政經濟政策은 거의全然 高橋藏相의손으로 되야 오늘까지 일흔것이다 그런대 後繼內閣에잇서 어떠한人物이 大藏大臣으로 됨을 不問하고 高橋財政과 全然 둥진 財政經濟政策을 내걸게될境遇에는 財界에는 非常한變化를 보게될不安이 만흘것으로보힌다 그럼으로 어떠한後繼內閣이든지 高橋財政과 相距가너무 멀지안흔 財政經濟政策아래 財界에 밋치는影響을 막을것이라는觀測이 잇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켜 高橋財政의延長이란 일흠을 붓치게된다

×

둘재・健全財政政策을보게되지안흘가 하는觀測이 一部에 잇다 卽增稅保留를 高橋藏相은 言明하엿스나 國債總額이 百億圓을 突破함을따라서 이미 公債漸減方針을 들어서財政健全化의必要를 暗示하여주엇다 그뿐만아니라 藤井前藏相의 손으로 臨時利得稅를 斷行하려든 大藏當局者는 不健全化의 財政을 어떠케 해서든지 健全化케 할가함에 焦燥하는 傾向이 顯著히 눈에 띄이고 또 一面으로는 藤井前藏相當時와 反對的現象으로 最近에 金融資本家側에서 맛企傾向에 對한 一層緩和策으로 增稅必要를 自進하야 提唱까지 하도록 時代는 變하엿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면 곳 財政健全化의 必要를 말하는것이다 그래서 後繼內閣은 健全財政政策을 나올것이라고 보는理由가 이곳에잇다。

셋재・統制經濟政策의强化를보게되지안흘가하는觀測이다 이것은 그동안社會擡頭에 잇는 反企的傾向 卽現資本主義 經濟를排擊하는 統制經濟의 擁護化가 이번事件으로 因하야 後繼內閣을 背景으로 하여가지고그것이 表面化를 보게되지안흘가 하는觀測이다。

×

그럼으로 後繼內閣의 人物如何에 關心을 두게되고 딸허서 그財政經濟政策을 重視치 안흘수업는 同時에 보는바에 依하야 그에對한 念慮도갓게되다 그러나 아즉까지 後繼內閣의人物을 모르는만큼 어느便으로든지 自信잇는 斷定을 말할때에 일르지못하엿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밝힐點이잇다 卽 지금에잇서 後繼內閣의 財政經濟政策에 對한 세가지의觀測이잇지만 그中에잇서 財政健全化政策은 달른 두가지의觀測보다 比較的實現이 적어보힌다 이것은 왜 그러나고 하면 오늘의財政은 健全化의必要를 明白히 늣기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莫大한軍費와 主因인軍事費其他의 四國事情으로 財政은積極的健全化의可能性이 薄弱한 때문이다 그럼으로 結局 問題는 後繼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이 高橋財政의 延長으로되느냐 그러치안코 現經濟機構와 相容되지못하는統制經濟의 擴張化를 보게될맛企的 財政經濟政策을 보게될가 하는것이 그核心의 點이다

—(繼續)—

高橋財政變化必至

軍備擴張、公債濫發不許

增稅急角度斷行?

【東京電話電通】後繼內閣의財政經濟政策이如何한內容일지 大命降下되지안흔지금부터 豫斷을 不許이나 財政經濟現狀으로보아도 今日의政局動向에徵할時 所謂高橋財政의標語로서 表現되든 財政經濟政策에相當한 變更을볼것은明白한것으로서 各方面으로부터觀測하면 今日까지 極力廻避되든 增稅斷行과如한것도急角度로서 拍車를加하야 이意味에잇서內閣審議會와 同調査局等의機能活動이 一段要望되기에 至할것한바大體의觀測으로서 如左한傾向을 指摘할수잇다고 생각되다

一、軍縮會議脫退後의 海軍防備擴張、大陸政策遂行上 陸軍國防充備의 必要等으로 財政上의 軍事費의支出을 去益膨脹케할것이다

一、國民經濟生活安定의 必要는 國家에依한 農村經濟對策 中小商工業者對策等을 去益緊要케하고 이方面에서도 財政의 膨脹을 하게할것이다

一、그런데 歲入에잇서는 租稅收入을비롯하야 自然增收에는 이미 언더을넘엇다는 意見이 强하고 自然增收에 依存함은 危險할뿐아니라 百億圓에 達한 公債累積의 現狀은 財界로하여곰 이以上無軌道로 公債의濫發을 할수不許할것이다

一、今日의政治情勢는 歲出에잇서나 歲入에잇서나 社會政策的施設을 必要로하고 特히社會政策을 加味한 稅制整理의 斷行이 强調되기에 至할것이다

金融界常態恢復

日銀發行高縮少

【東京電話電通】突發事件勃發以來 日銀貸出은 急速度로增加되어 二月二十六日부터 二十九日까지에 約四億四千九百餘萬圓이나膨脹되어 十一億六千五百八十七萬餘圓이되고 一方日銀兌換券發行高도 隨增되어 二日에繰越되든 帳面末은 十六億五千七百餘萬圓으로 近年稀有의 高額에達하야섯스나 二日에는金融市場이 漸次安定에歸하고 다만月末決濟가 延期된關係上 市場情勢는繁忙이엇스나 資金的으로는 一方國債利拂八千五百萬圓 (其中舊償付六千萬圓) 五分利債償還約九千四百餘萬圓의 資金이市中에 撒布되어 市中資金은潤澤化한 結果午後에는 日銀에의返金도 增加되어 그額이 約一億二千萬圓에 達하얏다 그結果 兌換券은 約一億四、五千萬圓縮少를 招來한 模樣으로 今後의市場은 平穩으로 推移하고잇다 三日로너머온 帳末에依하면 貸出은一擧에 一億三千二百二十七萬六千圓이 激減하야 十億三千三百五十九萬五千圓으로 되고 爲替銀行側의 大量返濟가 잇서 兌換券發行高는 十五億七千七百三十十一億圓臺가 깨어지고 兌換券發行高는 十五億七千七百三十五萬二千圓으로 七千九百六十五萬六千圓의 收縮이엇다 또預金은主로 一般預金의 增加에依하야 八百七十四萬二千圓增의四億一千七百二十七萬四千圓으로되어 限外發行高는 六千六百六十九萬九千圓으로 漸次減少이다

日銀貸出激減

預金增加傾向

【東京電話電通】金融市場의順調

實需期압둔『硫安』

朝鮮農會의斡旋價를引下식혀

當局市價引下를策圖

一時 暴騰一方으로 世人의物論을이르켯든 硫安價는 實需期를 目前에두고 더욱 騰氣를보이고잇서 朝鮮農會에서는 前者에發表하엿든 四圓八十五錢의 整頓價格을 다시引下케될모양이다 遞信局安界情勢를보면 朝鮮農會斡旋價四圓八十五錢에 對하야 朝鮮窒素에서는 四圓九十錢의 會社가 時勢不利를感得하고 各히 賣出코저 農村景氣가 多少조와 需要도 만허지朝鮮에로 輸移出을 着目케되엿結果 더욱騰氣를보이게되엿것이다 이에總督府에서도 市勢가 弱한것을보고 그趨勢를 觀望中近者에와서는 地方地勢까지 完全히 中央市勢에까지 平衡되도록 다시引下할생각으로・尾崎技師는 連日朝鮮農會當局과協議中이어서 不日間에 朝鮮農會의斡旋價를 引下하여 市價引下를 策하게될모양이다 今般의引下는 約二十錢程度일모양으로、四圓六十五錢假量으로되지안흘까하는 觀測이有力하다

地金市勢跳騰

十三圓賣聲

東京事件以來 地金市勢는 昂騰되는터인데 京城市中도 이에伴하야 昂騰되어 十三圓賣의 十二圓八十錢買唱으로서 跳騰이나 市中取引은 皆無이다

으로 價格引下를 發表하엿섯스나 地方市場은 上廻하고잇섯는데 近者에는 地方市場도 모다 騰貴를 表價格을 뛰어서 朝鮮農會의發表價格에서 完全히 平衡된 市勢를 보이게되엿다 이러케되는 裏面에는 品不足인듯이보이고잇든 日本內地와 滿洲의 各

米倉在庫高

百二十三萬石

米倉會社의 二日現在의在米高는 百二十三萬六千八百五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三萬千七百八十五石 前月에比하야 九萬六千六百六十四石의各增加이다 (以下單位石)

▲釜山一八五、九五六▲馬山三八、〇〇九▲麗水二五、八八九▲木浦一五三、二七八▲群山一五六、〇七一▲江景三四、九〇四▲仁川三六、四九一▲鎭南浦三一〇、三〇〇▲元山五、八七

豆類實收高

五百五十七萬餘石

比前年一割三分增收

總督府發表＝昭和十年豆類實收高를 調査하면 前年에比하야 作付反別은 조금減少되엇스나 收穫高는 前年은凶作이엇스나 모다相當한 增收이엇다 卽이것을 種類別로보면 大豆 四百三十七萬 五千二百七十八石 (前年에比하야 一割四分八厘增)小豆九十三萬四千百二十九石 (同七分增)綠豆 十三萬三千七百七十石 (同九厘增)落花生五萬九千九百二十四石(同三割五厘增)菜豆 二萬四千二百二十八石 (同一割七分二厘增)豌豆 二萬六千二百九十六石 (同一割一分八厘增)其他豆二萬三千百四十石(同七厘增) 合計五百五十七萬六千七百六十五石 (同一割三分一厘增)이다

殖銀米貸

新記錄

三千三百萬圓

殖銀二月末現在米貸融資額은 (單位圓) ▲農倉 七、七三三、〇〇〇▲

市場立會停止史【上】

이번 東京의 突發事件으로 東株를 비롯하야 各取引市場이 二十六日로부터 臨時休會하기 시작한뒤 오늘에 이르러 米其他의 商品市場은 立會가 되엇스나 株式은 依然休會가 繼續하고잇다 이처럼 市場이 臨時休會된은 過去에잇서 몃번이나 잇섯고 또는 어떠한 事情으로 되엿는지를 株式市場을 가지고서 고개를 돌이켜 살펴보면 다음과 갓다 日露戰役、大戰後으로 明治四十年 一月 十八日 東株七百八十圓의 高價를 보이도록 大熱狂을 演하기까지 根據整理로 臨時休會가 거듭되고서 翌來 東京株式取引所의 一日以

上 立會休止(事情으로 因한것)된것을 살펴보면 大體 如左하다。

〇明治四十年 一月十九日＝前日暴騰、根據整理臨休

〇明治四十四年七月六日＝東京鐵道市營契約이 五日에 成立된바이것이 動機가되어 株式暴騰休會

〇大正四年十一月卅日부터 十二月三日까지 立會停止＝이것은 歐洲大戰으로 因한 株界의 活躍이 高調에 達한 때문이니 이제 閉戰以來의 熱狂時代에 至키까지의 市場의 曲折을 要約하면 亂熱勃發에依하야 諸株互騰、其後數次의 反動的昂低를 하야 大正三年은 其最低位를示하고 大正四年에 入하야 回復趨勢이고 四月以降累進的步調로 十一月에及하얏다 그리하야 十一月二十二日부터 賣買激增으로 連日復場休會이다가 三十日은 立會停止이엇고 十二月에入하야 月初三日間立會를 停止코 四日에 發會하얏는데 取引所株奔騰을 비롯하야 諸株去益騰進이고 十圓、二十圓의 大幅騰落을 演하얏다 其後도 亂調가 繼續되어 四日、六日、十日、十一日、二十日은 根據整理로 各其復場休會이고

〇大正四年十二月二十四日＝臨時休會이엇스며 翌五年一月上旬도 東株增資說 金現輸入說等에 依하야 諸株活躍이고 六日、十日、十七日、二十四日、三十一日은 亦各其復場休會이엇다

—(繼續)—

米日爲替

十八仙高

廿九弗臺恢復

米日爲替는 三日入電이 二十九弗〇七仙에 올라서 前日의二十八弗八十九仙에 比하야 十八仙暴騰이오 二十九弗關門恢復이엇다。

【京城三日發同盟】三日의 米日爲替는 前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十仙으로 十八仙高 買二十九弗六仙으로 十六仙高

▲東京爲替 (三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四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一分一 買 一志二片卅一分一

▲大阪爲替 (三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一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十五

米倉 八、八五三、〇〇〇▲殖倉 五、六八一、〇〇〇▲其他 一〇、八八五、〇〇〇▲合計 三三、一五二、〇〇〇으로同行創設以來 新記錄을示하엿스나 아즉도 多少增加할모양임으로 結局 今年最高는三千五百萬圓을 突破할모양이다 그러고 右中 一千八十八萬五千圓은 自己資金이다

英日爲替反撥

【倫敦三日發電通】英日爲替는事件後비롯오 二日에至하야 反撥되어 六十四分의三片高인 一志一片三十二分의 三十一로大引되여 事件前日에 比하야 十六分의 一의低價이다

因하야 對米二十九弗十六分一賣 十六分三買로 同日에比하야 一포인트乃至一포인트半이 反撥하고 對英正金爲替는 據置이나 市中은 一志二片三十二分三十一賣、一志二片三十二分一買로 此亦半포인트가 昂騰하엿다

東京爲替市場

事件前景氣回復

【東京電話電通】事件의急速한鎭靜과 三日入電의 米日爲替는 十八仙이 反撥하엿음으로 同日의 東京爲替市場은 事件前景況으로 回復하고 正金은 對米爲替를 一포인트引上하야 二十九弗八分一로 改訂한때문에 市中도 이

今日財界 (三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六〇 三〇低

大阪期米 先限 三〇 三〇低

㊣三等米 一石 三〇 二〇低

京城一等白米百斤 三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八錢 七厘〇

仁川 三等 八錢 五厘〇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三圓 一匁買 十二圓

銀 十九錢〇厘 十五錢〇厘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

東新 —

日產 —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一八〇〇 五〇低

大阪棉花 三〇 二〇高

大阪人絹 三〇 二〇高

大阪砂糖 二〇 二〇高

五 고무現 三二〇〇 二〇低

經濟界消息

〇殖銀十八銀行引繼完了＝殖銀의 十八銀行引繼는 二月二十九日에 行한바 二日까지의 手形交換에廻한 十八銀行 振出의 手形은모다 支障업시 交換을 完了하고 三日부터는 殖銀振出의手形에 振替하야 一切引繼를 完全히終了하얏다

〇海昌洋行設置開業準備＝佛國金리바一會社에서는 歐米에 局限되엿든 販路를 東亞까지 擴張코저 上海紅十字病院醫師黃彰烈氏를 通하야 朝鮮과 滿洲에 藥品供給의 總代理인 海昌洋行을 京城黃金町二丁目八八番地에 設置하고 目下開業準備中이라고

〇取引停止▲鐵物＝京城府元町二丁目 池田德平 ▲不詳＝京城府若草町一〇六 西山小太郎 ▲不詳＝黃海道延白郡湖東面羅津浦里三의八 張濟澤

商況 (三日)

株式 各地모다 續休

朝取短期續休

一部解合?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三日午前十時부터 商議員會를 開催하고 三日以降의 開市問題와 短期建玉處理問題에對하야 協議한바 三日도 日本內地同樣 休止키로 決定하고 短期建玉處理에 對하야서는 諸說이잇스나 結局日本內地同株主要株一部의 解合을하게될模樣으로 日本內地 市場의情報를 기다리고잇다

再開後大波瀾?

【東京電話電通】東株市場의 氣配는 前途難測의 情勢인데 開

增稅斷行形勢

驚天動地的 二・二六事件 突發로 各地株式市場은 四日까지 立會停止이오 後繼內閣成立을 기다리고 잇는데 昨日比較的 靜穩하얏든 各商品市場도 期擱再開되엿던 米、綿絲、綿花、人絹、生絲等모다 漸落不勢로 推移되고잇다。 그런데 新內閣이 누가될지는 아즉모르나 政治經濟의 情勢로보아 高橋財政은 變更必至로보이며 宿題인 增稅斷行이 急角度로 實現되리란 觀測이 濃厚한만큼 五日도 再開로 羅動되는 株式의 再開後는 相當한 混亂이 豫想되는터이다。

이라 破壞식힐 內閣이 나오지안흘것이 현재의經濟機構와 金融組織을 이 ...

는 漠然한推測은 할수잇지만 이것만가지고는 市人의安心을與치 못할것이라것다

財界平靜과 株式

戒嚴令下의 財界는株式의 再開未 再開이나 其他市場은 比較的平穩裡에 再開되어잇고 民間普通取引도 低落은 업스며 爲替市勢도 低落되엇지만 激落이라고는 할수업고 各種生產事業도 別無打擊으로서 各方面共히 安定이라고할수잇는터이다 이 財界의 平靜으로서 株式市勢를 어떠케보아야올흘가? 後繼內閣이 아즉도 成立되지못하얏고 어떠한內閣이 나올지 推測조차할수업스며 從하야 新內閣의 財政政策이 란것이 어떠한 것일지를 모르는만큼 株界는 비록平靜하게되엿다드래도 恐怖人氣는 解消되엇다드래도 그뒤에 올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重大關心을 가지고잇는터로서 冷靜히 생각한다면

東株短期解合棒價

【東京電話電通】東株短期建玉四銘柄에 對한 强制解合棒值는 如左히 決定하엿다。

(銘柄)(棒值段)(二月二十(比較) 五日引値)

東新 一〇三 九五 〇四低

鐘新 一三〇 八〇 〇三五低

日產 七七 〇五 七七 〇五 不

東電 六〇 六〇

東株長期解合

五銘柄棒價決定

【東京電話電通】東京株式取引所는 長期取引員組合問題에 關하야는 一般取引員組合에서는 三日午前十一時부터 委員會를開하고 解合棒値를 內定하야 午後一時부터 取引員總會를開하고 이것을附議하야 如左히 正式決定하얏다。

解合棒價 二月廿五日 後場大引價 比較低

東株 三限 二〇四 二〇〇 四低

東新 三限 一〇 一〇三 七低

新鐘 三限 一五〇 一五一 一低

日產 三限 七五 七九 四低

東電 三限 六〇 六一 一低

右五銘柄의 現物提供分은 半數解合으로서 計九萬株、九百三十萬圓에 達하고 이것은 有志取引員이 引受키로되엿다

東株立會遲延

【東京電話電通】東株에서는 長期建玉의 整理問題가 一段落되여 再開準備가 되엿스나 豫定되던 五日의 立會開始는 아즉困難한 模樣으로 結局立會開始는 六日이나 或은 一兩日더 遲延될 模樣이라한다

第一段落과 共히 人氣는 昨今安定이오 此間 東株株百五十五圓으로 停止前보다 僅히 四圓七十錢의 低價로 解合되기에 至하얏슴으로 一層人氣는 安心好感을 與한모양이다 다만 財界의 常務當者을 待하야 大藏大臣의 椅子에 何人이 座할가가 問題이다 現與黨總裁 結城豊太郎氏의 就任이되면 市場은 好感을 受할것이다 問題는 新內閣에 依하야 一大增稅가 斷行되리라고 보아 이點을 非常히 念慮하는者만흔것한데 再開後市場은 相當한 波瀾이 豫期된다 한다

强制解合이란?

東京電話電通에 依하면 東株短期建玉四銘柄에對한 强制解合價格을 決定하얏다하는데 强制解合이란 무엇인가 解合에關한用語를 解說하면

【解合】 一般的으로는 約定의合意的解消인데 市場에서는 取引所賣買에 關係한多數取引員間에 行하는 前約定의解約이다。大概는市勢激變時에 賣買者 協議結果行하는것인데 取引全部에 及하는것 一部에止하는것 半强制的인것 全然合意에依하는것等內容相異에依하야 總解合、拔解合、一部解合、强制解合、合意解合等의區別이잇다。

【總解合】全部解合과갓다。

【全部解合】賣方와 全部의買方의全部間에 그建玉을解合하는것 解合이란것은 立會의 賣買에잇서 賣買戾를 하는것이아니오 場外에잇서一定의市勢를 決定하야 그價格에依하야 賣買契約을 解消하는것이다。從하야 이 全部解合은 取引所存立의 意義에 反하는바만흠으로 現在는 表面上 禁止되어잇다。

【一部解合】賣方의 一部와 買方의 一部가 解合同意에依하야 實買關係를消滅케하는것이다。

【拔解合】市場의 取組에 解合의 方法을 行함을 仕手又는 取引員이 相互自由意思에依하야 秘密히 個個의 契約으로써 이미 成立한賣買關係로부터 離脫하는것을 말한다。卽買方은 賣方에게 買玉을 賣方은 買方에게 賣玉을相互同數建玉을 提供하야 買玉의相殺를하고 實買가 업슬하 以前의狀態에 回復하는것이다。要컨대 一部解合이다。

【强制解合】强制解合은 一部解合과 同一하나 基準이 되는 價格을 作成하는것이 第一要點인데 그作成價를 棒值라하며 이에依한解合을 棒值解合이라고한다。以上과 가튼데 元來解合이란 取引所로서 寬恕하지라도 全然合意에依한것이 아님으로 强制解合이라함이 생기것으로서 多數取引員間의 前約定解約이다

日魯株는暴騰

產金株도强調

東京事件에 依하야 主要株式은 取引所의 休會中이나마 氣配는 一齊히 暴落되엿스나 日魯漁業株는 過般行한 漁區入札의 結果를好感하야 도리혀 昂騰되어 現物은 七十圓唱이오 休市以前보다 三圓五十錢高를 示하고잇고 產金株도 地金市勢昂騰에 依하야 暗氣配는 反騰步調이다

米期 漸落步調

不勢

前場反落

昨後場 阪地三十二十九圓 一圓十五錢으로止와 共히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錢인 五丁反落을 報하고 二十八圓九十七錢인 九丁低로 寄付한後 阪地二十一錢까지 小戾하엿다가 十八錢으로 反落 止場함을 伴하야 九十錢의 最低價로 軟弱場을 止하엿다

後場波瀾

後場은 二十八圓八十三錢에 七丁低로 始場後二節七十錢에까지 떠러젓다가 五節八十八錢에 反戾되고 八十六錢에 止場하다。

解租後의農家

그態度가注目

朝鮮의 短期貯藏이 解除되後에는 一落을 告할것으로 去月末日로서 解除되엇슴에도 이러할만한 產地出廻가업는 모양이다 아즉解除後 時日이 淺薄함으로 出廻가 稀薄한 것도事實이나 그러나 農家의 立場으로보더면 貯藏期間中에는 當局의 補助가 잇섯지마는 解除後부터는 時日을 經할사록 金利와 倉庫料의 損失을 보게될것이오 又는米價가 騰貴한다면 持久的 方針을 取할수도잇스나 그러치

殘米發表期待

果然減退乎

압흐로 硬軟兩派의 期待하는材料는 三月一日現在 日本內地殘存米의 發表如何인데 硬派는此에對하야 本米穀年度에는 民間米가 昨年同期보다 豐富한關係上 消費力이增進하엿슴으로 적어도 例年보다 三百萬石의減量을示하엿슬이라고 主張하나 그러나 軟派는 此에反하야 今年은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이 貿惜又는 制高의關係로 例年보다 減退하엿슬뿐아니라 日本內地米의 總數字는 實收高에잇서서는

안코 米價가 反落하는때는 더욱損害를 加重하게될것으로 米價가低落할사록 產地의 實物이 더욱 이어 出할傾向이 多하다 實로・今朝의 反落은아즉 그原因을 알수업스나 此落潮가 어느程度까지 繼續하는때는 農家의 恐怖的實物이 現出하야 頹勢를又一層 助長할지도 亦未知이라고某軟派는 主唱한다 果如何?

五百六十餘萬石의 增收를 示하엿스나 政府의所有米가 例年보다 減少되엿슴으로 其實八十餘萬石의 減數를示하엿슨즉 供給의不安이 不無한 今日에 民間의 消費力이 增進되엿슬理가 萬無할이라고 또한 主唱한다 果然어느 便의 說이當할 得할지는 몰으나 遺骸 實收發表時에 百萬石減收豫想이 反히 四十萬石增收이엇슴으로보아 殘米의 減少說도 또한 確信할수업다고 商談이區區不一하다

市場六感

株 株式은四日까지 休止決定되고 五日도再開疑問▲二日에 決定된 東株短期四銘柄强制解合棒價를보면 二月二十五日大引價에比하야 東新四圓七十錢低인 百五十五圓丁 鐘新三圓五十錢低인 百五十三圓丁 日產不變인七十三圓五十錢 東電一圓六十錢低인 六十二圓五十錢▲二・二六事件의決算이 東新五圓未滿의低落일가?▲後繼內閣未成立인지금 무어이라말할수업스나 高橋財政變更必至로 增稅斷行濃厚하고▲增稅되어도 財界에큰影響이 업다고하면簡單히 짐어치우기는早計▲再開되어强力內閣歡迎市勢가 나오다면그는絕好의賣場?

米 事件後 처음으로 開場된 昨日의 市勢는 別影響이업시 平穩히 一日을經하고 今日에야 俄然反落、此가 今般事件의行動?▲그러치 안호면 朝鮮短期貯藏의 解除로因한低落으로 볼수박게 업는걸▲그러나 解除後 겨우 三日박게 經過되지안혼 今日임으로 農家의 出廻如何도 向未知▲三月一日現在 日本內地 殘存米의 發表가 如何한 結果를招來할지몰으나 此의發表가 强材料化하지 안는때는 實惜하든 農家도 失望에 歸할모양▲그理由는 殘存米의 減收發表外에는 別强材가 업슬것을 말함이다 ▲果然 이러다 할만한 强材가 업시 市勢의 反落을 招來하는때는 農家의恐怖的 實物이 續出하지 안흘까한다 ▲實로 쌀이란 國際的商品이 아니며 變質期에入하기前에 賣却하여야할 藏品이 아닌만큼 早晩間市場으로나올것만흔事實 ▲何如間特殊한强材를 胚胎하지안코는容易히大勢를恢復하기困難할모양

朝取 米 株 光皿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六八番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㊁三〇〇 ㊂三〇〇 ㊇三〇〇

㊆二〇〇 ㊂三〇〇 ㊉一〇〇

㊈六〇〇 ㊂六〇〇 ㊈一〇〇

〇三〇〇 ㊆一〇〇

㊀五〇〇 ㊂六〇〇 ㊄二〇〇

株式 期米 玉 柳來恒商店 朝取取引員 仁川府本町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朝鮮側 地場張氣側 西側

▲買方＝地場 潮先來客側 地場潮政

各地正米

京城軟調

朝米低盛로 賣氣一段衰하고 市況五錢의 軟調를呈한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氣崩

月初이나마 阪神方面의 買氣萎縮으로 商談이 안되고 唱은 五錢低인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丁

釜山反落

市場賣物 三千以定期低盛으로 移하야 日本內地의注文中絕狀態로 買氣極端으로萎縮하야 九百七十一以 一擧로 十五錢反落에 僅히 取引이잇섯다 角フ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 十二錢

大邱弱含

極度의 賣行不立

群山保合

賣氣는 薄하야 一般이 買意薄이오 期米漸落을보고 氣配十錢下向인 角フ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弱着十餘 日本內地人注文頻繁하나 指價低로 面談이 안되고 市況閑散裡에 保合인 菱々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木浦軟弱

定期鈍重을 移하야 買氣不立이오 正租解除와 共히 產地의 賣氣潜在로 市況은 軟弱하야 丸木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丁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間物屋) 電話本局三二六番 振替京城壹五壹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金先送料要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 金先送料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大連 特產 市勢◆

◆滿洲 商況◆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 三日◆

◆大阪期米◆

◆大阪正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商品 三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外國爲替◆

金融 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賣入價◆

◆京城市中金銀價◆

米穀 三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東城雜穀◆

◆京城綿糸布市勢◆

◆銘柄油價◆

◆銘柄油價◆

◆日本變動市勢◆